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2,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채민진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성역할태도의 유형에 따른 결혼 인식의 차이를 밝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기존의 논의는 한국 2,30대에서 부정적인 결혼 인식이 확산된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의 침식 또는 가족 내 젠더불평등에 대한 여성의 반발을 지목해왔다. 그러나 인구 혹은 여성 집단 전체의 결혼 인식이 일관되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내부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성역할태도의 유형에 따라 결혼 인식이 달라지며, 성역할태도 유형의 효과는 젠더에 따라 다시 달라진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선행 연구는 성별 분업에 기초한 ‘전통적’ 성역할규범이 젠더와 무관한 역할 분배를 지지하는 ‘평등한’ 성역할규범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별 변화 정도에 따라 결혼 인식이 달라진다고 논의해왔다. ‘평등한’ 성역할규범이 정착된 국가에서는 결혼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전통적’ 성역할규범이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의 성역할규범 변화를 전통에서 평등으로의 단선적인 진보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평등의 의미는 국가별 맥락에 따라 분화할 수 있다.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지지하면서도 가족의무는 여성에게만 배정하거나 여성이 일터와 가정에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가정에 대한 헌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성역할태도 또한 평등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가족주의적 복지 체제와 젠더 분절적 노동시장을 두 축으로 하는 제도적 맥락이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를 장려하면서도 가족 내 돌봄노동의 전담역시 기대하는 ‘이중역할’의 규범적 맥락을 체현하는 동시에 형성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이 연구는 한국의 2,30대 일부의 성역할태도가 규범적 맥락으로부터 급진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국의 2,30대에서는 여성이 일터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하며 가족의무가 여성의 몫만은 아니라고 보는 비중이 40대 이상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 내 성역할 분배를 둘러싼 기성의 제도적·규범적 맥락과 조응하지 않아 결혼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여성에게 이중역할을 부과하는 규범적 맥락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기대되는 역할 수행을 부담스럽게 여겨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갖는다. 성역할태도의 부정적 효과는 가족 내 역할을 담당해온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다.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집단분석과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2,30대의 성역할태도는 평등, 이중역할, 전통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각 32%, 42%, 26%를 차지한다. 평등 유형은 동등한 역할 수행을 긍정하면서도 유독 자녀돌봄 부문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중역할 유형은 임금노동할 권리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보면서도 가사 및 돌봄노동의 의무는 여성의 몫으로 파악한다. 전통 유형은 남성은 노동시장, 여성은 가족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성별분업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취한다.

규범적 필요성과 경제적 편익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혼 인식에 성역할태도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평등 유형은 이중역할 유형에 비해, 이중역할 유형은 전통 유형에 비해 규범적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영향은 젠더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은 이중역할 유형이 전통 유형에 비해 규범적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크게 낮은 반면, 남성은 두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결혼에서 경제적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은 평등 유형과 전통 유형 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더불어 젠더 차이를 고려한다면 남성은 전통 유형에서 이중역할과 평

등 유형에 비해 경제적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나 여성은 세 유형 간 차이가 미미하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용직은 비고용 상태에 비해 전통 유형에서 다른 두 유형보다 경제적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남성은 전통 유형에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경제적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는데 상용직이 그 차이를 주도한다는 뜻이다. 비고용 상태의 남성은 생계부양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껴 전통 유형에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경제적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 2,30대의 성역할태도를 일터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유형화하여 전통과 평등의 이분법으로 포착될 수 없는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낸 데 있다. 여성이 가족 내 역할을 전담해야한다는 규범은 일부에게는 거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에게는 수용되더라도 여성이 동시에 경제적 역할에도 책임이 있다는 태도와 충돌을 일으킨다. 또한 이 연구는 2,30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혔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믿을수록 결혼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분석 결과는 한국의 제도적·규범적 맥락 아래에서 결혼이 지향하는 성역할태도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할 것이라는 인식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역할태도, 결혼 인식, 잠재집단분석, 평등, 이중역할, 전통
학 번 : 2017-22720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성역할규범과 결혼 인식 간 관계	5
1. 성평등접근과 결혼 인식의 측정	5
2. 성역할태도 유형의 분류	10
3. 한국의 성역할규범 맥락과 균열	15
제 2 절 한국 가족의 제도적 맥락	22
1. 가족주의적 복지 체제	22
2. 젠더 분절적 노동시장 제도	24
3. 제도적·규범적 맥락과 개인적 태도의 충돌	28
제 3 장 연구방법	33
제 1 절 분석자료	33
제 2 절 변수측정	33
제 3 절 분석방법	38
제 4 장 분석결과	40
제 1 절 한국 2,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 유형	40
제 2 절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 필요성 및 편익	43
제 3 절 젠더 차이	45
제 5 장 결론 및 논의	52

참고문헌	54
Abstract	65

표 목 차

[표 1] 성평등 접근의 단계별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11
[표 2] ‘불경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더욱 보장받아야 한다’에 대한 젠더·연령별 응답	19
[표 3]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에 대한 젠더·연령별 응답	20
[표 4] 젠더별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	34
[표 5]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37
[표 6] 잠재집단분석의 모형적합성	40
[표 7] 성역할태도 유형별 여성의 역할 인식과 비율	43
[표 8]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46
[표 9]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49

그 립 목 차

[그림 1] 성역할 태도 문항별 반대 확률	36
[그림 2] 성역할태도 유형에 따른 문항별 반대 확률	41
[그림 3]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필요성 인식 확률	44
[그림 4]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편익 인식 확률	45
[그림 5]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필요성 인식 확률과 젠더 차이	47
[그림 6]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편익 인식 확률과 젠더 차이	50

[그림 7] 남성의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편익 인식 확률과 고용상태 차이 51

제 1 장 서론

저출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비혼 및 만혼 추세 방지라는 주장과 함께(이철희, 2012), 결혼이행의 감소 원인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결혼 건수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1996년 43만 여건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39만 여건으로 떨어졌다. 그 이후로도 감소세가 이어져 2017년에는 26만 여건에 그쳤다. 20여년 사이 4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통계청, 2018). 결혼이행의 감소는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20-39세 인구가 1995년 1681만 명에서 2015년 1381만 명으로 18% 가량 감소한 까닭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결혼을 경험하지 않는 인구의 증가에서 비롯한다(우해봉, 2012). 한국은 인구조사가 실시된 이래 결혼 경험이 없는 45세 이상 여성 인구가 5%에 미치지 않는 보편혼 사회에 속했다(통계청, 2016). 그러나 최근의 코호트(1981~1985년생)에서는 이 비율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Yoo, 2016). ‘결혼 혁명’(Lesthaeghe, 2010)으로 일컬어질 만큼 급격한 변화다.

결혼이행 감소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설명은 결혼 인식의 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두 갈래로 나뉜다. 한편에서는 결혼이행의 감소가 결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중요한 만큼, 본인 혹은 예비 배우자가 일정 이상의 물질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회피한다는 해석이다(박경숙·김영혜·김영숙, 2005; Chang & Song, 2010; 장경섭, 2011; 심영희, 2011; 최필선·민인식, 2015; 장경섭, 2017; 권오재, 2017). 이는 최근 청년층의 경제적 결핍이 연애·결혼·출산의 포기로 이어졌다는 ‘삼포 세대’ 담론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경향신문, 2011.05.11.).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족의 구성원들, 특히 여성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해온 규범적·제도적 맥락으로 인해 결혼을 원하지 않는 태도가 확산되었다는 관점이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경제적 자원의 확보가 결혼이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경험적 보고를 감안할 때(우해봉, 2009; 2012; 유홍준·현성민, 2010; 윤자영, 2012; Park, Lee & Jo, 2013;

오지혜·임정재, 2016; Hwang, 2016), 결혼의 회피가 아닌 거부의 움직임
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을 포함한다(Song, 2011; 박기남, 2011; 배은
경, 2015; 이재경·김보화, 2015; 홍찬숙, 2015; 이순미, 2016).

이 연구는 결혼 인식의 변화가 인구 혹은 여성 전체에서 일관되게 진
행 중이라는 기존 논의의 구도를 비판하며 성역할태도의 유형에 따라 달
라지는 양상을 밝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성역할태도는 흔히 여성과 남성
간의 동등한 혹은 분리된 역할 분배를 지지하는 양극단의 태도로 분류되
나, 이 연구는 한국에서 가족이 위치한 제도적·규범적 맥락 속에서 복
합적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 조
응하지 않는 성역할태도 유형에 속한 개인은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갖는
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제도적·규범적 맥락은 젠더에 따라 차별
적인 역할 분배를 전제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역할 수행을 지
지하는 개인의 결혼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시각이다. 규범적
맥락에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 개인조차 바람직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여겨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결혼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비교연구들은 성별 분업에서 젠더 구별이 없는 역할 분배로의 세계적
성역할규범 변화 추세가 결혼 인식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논의해왔다
(Goldscheider, Bernhardt & Lappegård, 2015; Esping-Anderson &
Billari, 2015; Geist, 2017; Bellani, Esping-Andersen & Nedoluzhko,
2017). 그러나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변화보다 지속에 주목해왔다(박경숙
외, 2005; 최필선·민인식, 2015; 권오재, 2017). 한국에서는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과 남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 참여가 일부 늘어났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주된 역할은 각각 가족돌봄과 생계부양에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
고 있다는 관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남성의 것에 비해 크게
낮으며 남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이 여성의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현실은 ‘전통적’¹⁾ 성역할규범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
된다(통계청, 2017; OECD, 2016). 따라서 한국에서 성역할규범의 변화가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린다.

1)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배제를 ‘근대’의 외부, 즉 ‘전통’의 자리에 놓는 설명은 근대적
발전의 여성배제적 성취 원리를 은폐한다(최선영·장경섭, 2004).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
을 각각 노동시장과 가족에 분리하여 배치한 성별 분업이 전통적 이념의 잔재가 아니라
근대사회 구성의 핵심 원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에서 변화가 행태적 차원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태도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판단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40대 이상과 체계적인 차이를 포착하는 2,30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태도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여기서 성역할규범의 변화가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해야한다는 차원에서는 유의미하게 진전되었으나 남성이 가사 및 돌봄노동을 분배해야한다는 차원에서는 정체되곤 한다는(Gerson, 2009; England, 2010; Hochschild & Machung, 2012) 지적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차원을 각각 측정하여 통합하는 대신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는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차원의 태도가 조합되는 양상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inton, 2016; Brinton & Lee, 2016; Knight & Brinton, 2017).

동시에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변화가 반드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역할 수행해야한다는 규범의 정착으로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비록 2,30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가족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에 젠더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태도가 부상하고 있지만, 다수의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성평등 접근(Gender equity approach)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 생산성과 기대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을 위해서라도 성평등이 성취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적 경력을 중시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현상이 가족에 대한 헌신을 약화시켰다는 점도 덧붙인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서구가 걸어간 경로를 한국이 그대로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늘날 한국의 제도적·규범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탐구한 바탕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연구는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2,30대 한국인이 포착하는 성역할태도의 유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성역할태도의 유형에 따라 결혼의 규범적 필요성과 경제적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더 나아가, 젠더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젠더에 따른 차이

를 검토한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르게 배정하고 있다면 같은 성역
할태도 유형에서도 젠더에 따라 결혼 인식이 차별적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성역할규범과 결혼 인식 간의 관계

1. 성평등 접근과 결혼 인식의 측정

결혼 인식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행위로부터 인식을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Becker, 1981; van de kaa, 1987; Oppenheimer, 1988; Lesthaeghe, 2010; Esping-Andersen, 2009). 결혼이행 가능성이 높으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결혼이행 가능성이 낮으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긍정적 결혼 인식에도 불구하고 결혼이행에 요구되는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의존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거나 기대에 부합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는 결혼 인식이 결혼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나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성역할규범과 결혼 인식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경제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은 결혼 인식의 요소를 다르게 파악한다. 먼저, 경제적 접근에서 결혼 인식의 주된 요소는 비용 대비 편익이다. Becker(1981)의 성역할 전문화 모델(Gender-role specialization model)은 결혼을 둘러싼 비용-편익 계산의 핵심이 성별분업 아래 여성과 남성 간의 교환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 모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가사 및 돌봄노동의 기회비용을 늘려 결혼의 비용 대비 편익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고용지위가 높아질수록 결혼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결혼이행이 감소한다는 해석이다(Espenshade, 1985; Goldscheider & Waite, 1986).

한편, 규범적 접근에서 결혼 인식의 변화란 결혼을 당연시하는 전통적 규범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의 확산을 가리킨다. 제2차 인구 변천 이론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van de kaa, 1987; 2004; Lesthaeghe, 2010; 2014)은 자신보다 가족에 헌신해야한다고 믿는 대신 개인적 성취, 자아실현 등을 중시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여기서 개인적 성취는 노동시장 경력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가족 내 역할은 특히 그 전담자로 규정되어온 여성에게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겨진다. 가족 형성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유사한 견지에서 개인화(Individualization) 이론은 남성이 친족, 지역공동체 등 전통적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으로 거듭난 것처럼 여성 또한 남성이 가장이 되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개인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본다. 여성이 가족 내 역할로부터 해방되어 일을 우선시하는 한편, 가족은 부차시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시각이다(Beck & Beck-Gernsheim, 1995; Beck, 2002).

경제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은 각각의 약점을 지닌다. 경제적 접근은 비용-편익 분석에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예컨대 결혼이 당위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개인이 치러야하는 비용 혹은 결혼한 개인이 누리는 편익이 매우 크다. 반면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그 비용 혹은 편익이 급격히 작아진다. 하지만 경제적 접근은 이러한 사회적 차원이 만들어내는 비용-편익의 변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규범적 접근은 결혼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거부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개인적 선택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결혼을 둘러싼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해관계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을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 인식을 결혼의 편익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한다. 결혼을 하면 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결혼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듯이 두 차원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독립적이다.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Becker(1981)의 성역할 전문화 모델에 입각해 교육수준, 고용지위 등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여성들의 결혼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박경숙 외, 2005; 우해봉, 2009; 2012; 유홍준·현성민, 2010, Park et al, 2013; Hwang, 2016; Yoo, 2016). 이에 근거해

경제적 자원을 갖춘 여성의 결혼 인식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이 여성들은 한국의 비혼 및 만혼 추세를 주도하는 한 축이자 저출산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결혼 인식의 변화는 성역할규범의 맥락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을 긍정하는 동시에 남성의 가족 내 노동 참여를 끌어내는 성역할규범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자원을 갖춘 여성도 긍정적인 결혼 인식을 유지할 수 있다. Oppenheimer(1988)는 미국에서 여성의 임금노동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되자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여성에게도 결혼의 편익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력 진입과 배우자 탐색에 시간이 소모되어 결혼 시기가 늦어졌으나 결혼이행의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이 주장은 다수의 경험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Goldstein & Kenny, 2001; Sweeney, 2002).

최근 한국 출생코호트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원과 결혼이행 간의 관계가 더는 일관되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고한다. 윤자영(2012)은 여성의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결혼 가능성이 높아지며, 최근(1973년 이후) 출생한 정규직 여성이 이전 출생자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한다. 과거와 달리 정규직이라는 경제적 자원이 여성의 결혼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함의를 지닌다. 오지혜·임정재(2016)에 따르면 대학 졸업뿐만 아니라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 여성들이 취업 상태인 경우 결혼 비율이 높았지만 미취업 상태인 경우 결혼 비율이 낮아졌다. 여성의 학력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로 이어진다면 결혼 가능성을 높인다는 뜻이다. Kim(2017)은 한국 여성의 고용지위와 결혼이행 간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1950년대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60년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으며 70년대에 이르러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변화하였다고 밝혔다.

경제적 자원이 여성의 결혼이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분명하다. 정규직뿐만 아닌 전체로 보았을 때 취업 상태는 여성의 결혼 가능성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며(윤자영, 2012), 전문대졸 여성은 고졸 여성에 비해 학력이 높지만 결혼비율은 훨씬 낮다(오지혜·임정재, 2016). 남성의 경제적 자원은 일관되게 결혼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제적 자원은 어떤 경제적 자원이나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

정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고용지위의 경우 정규직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취업 상태는 부정적이며,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전문대졸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화한 지점을 파악하고 이것이 결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성평등 접근은 대안적인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 성역할규범의 변화를 세분화하여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가족 및 결혼 인식의 변화와 연결 짓기 때문이다. Esping-Anderson(2009)은 Becker(1981)의 성별분업 모델이 헤게모니적이고 규범적인 질서로 인식되는 상태를 ‘베커 균형(Becker equilibrium)’이라고 부르며 이는 1990년대부터 ‘성평등 균형(Gender equality equilibrium)’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틀에 따르면 베커 균형에서 벗어나는 초기에는 여성이 임금노동과 가사 및 돌봄노동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결혼을 기피한다. 평등한 성역할규범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지만, 이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평등한 성역할규범이 부상한 직후에는 확산이 더디게 이루어지다가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를 점한 후에는 속도가 붙는다. 이 틀에서 한국은 성평등 균형이 등장한 초기 단계로 진단된다.

성평등 접근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성역할규범의 맥락과 결혼 인식 간의 관계를 국가별로 비교한다. Esping-Anderson & Billari(2015)은 30-60세 인구 중 이혼, 별거, 미혼 상태인 비율을 통해 파트너 관계의 불안정성을 측정하고 Bellani et al(2018)은 39세 이상의 인구 중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을 통해 결혼 인식의 부정적인 정도를 측정한다. 비교 결과 두 비율 모두 성역할규범의 변화가 불완전한 국가에서는 높은 반면, 평등한 성역할규범이 확산된 국가에서는 낮았다. 그러나 Esping-Anderson & Billari(2015)과 Bellani et al(2018)이 언급하듯이 결혼 인식과 별개로 결혼 ‘제도’에 대한 인식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Hiekel, Liefbroer & Poortman, 2014).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을 통하지 않은 파트너 관계의 구축, 다시 말해 동거가 대안적인 제도로 등장했으나 그 외 국가들에서는 사정이 다르므로 유럽을 배경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이행의 비율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결혼 인식을 파악하는 대신

직접적으로 결혼 인식을 측정하여 분석한다.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결혼의향을 통해 결혼 인식을 측정해왔다(김정석, 2006; 이삼식, 2006; 진미정·정혜은, 2010; 김중백, 2013). 이들 역시 결혼의향이 젠더 및 성역할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밝힌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으며,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진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구체적으로 이삼식(2006)은 미혼여성의 경우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특히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성역할규범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이 경향은 결혼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든다. 진미정·정혜은(2010) 역시 성역할분리규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의향이 더 낮다는 분석 결과를 제출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결혼에 기대되는 편익과 결혼의 필요성을 통해 결혼 인식에 접근한다. 결혼의향은 미혼 여성과 남성 본인의 장래 결혼 의지에 해당하나, 결혼 필요성과 편익은 본인의 경우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필수적인지와 편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의견이다. 이 연구는 본인의 결혼에 대한 판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는 결혼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두므로 결혼의향보다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 인식이 더욱 적절한 측정의 도구가 된다고 판단한다.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한 평가가 본인의 결혼에도 적용되며 결혼의향과도 긴밀하게 연관되거나 구별의 의미가 있다.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호정화(2014)는 결혼의 필요성 인식 변화에 대한 결혼 여부와 가구 형태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비혼 1인가구에서 결혼의 필요성 인식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정적 결혼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듯이 결혼이행을 하지 않아서 부정적 결혼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 여부를 통제 변수로 고려하되 본인의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 인식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므로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과 경험한 기혼 모두를 분석에 포함한다.

2. 성역할태도의 유형 분류

Esping-Anderson(2009)은 ‘다중균형(multiple equilibrium)’이라는 용어를 통해 한 국가의 시민들이 서로 다른 선호와 규범적 행위 기준들을 채택하는 균열의 상황을 묘사한다. 저학력층에서는 베커 균형에 입각한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성별분업을 실천하는 비중이 상당한 반면, 고학력층은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젠더 구별 없는 역할 분배를 채택한 상황이 대표적이다. 다중균형의 균열은 두 차원에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앞서 들었던 학력의 예시처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평등한 성역할규범이 확산된 정도에 체계적인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둘째로,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양적으로는 확산되었더라도 영역에 따라 분절되는 질적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McDonald(2000a; 2000b; 2013)는 개인지향적(individual-oriented) 제도와 가족지향적(family-oriented) 제도 간의 불일치에 주목한다. 노동시장 및 교육제도가 개인을 단위로 삼는 성평등(Gender equity) 모델을 채택한 반면, 가족 제도는 여전히 Becker(1981)의 성역할전문화 모델과 같은 가족 단위의 남성 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 모델에 입각해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 간 불일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는 개인으로서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사 및 돌봄노동을 전담해야하는 이중부담을 초래한다. Goldscheider et al(2015)의 표현을 따르면 성역할 혁명의 첫 번째 절반(first half)만이 이행된 단계다. 제도 간 불일치의 해소는 가사 및 돌봄노동이 여성의 몫으로 성별화된 상태를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논의된다. 성역할 혁명의 두 번째 절반(second half)에 해당한다.

두 차원의 균열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접근의 논자들은 성역할 혁명이 결국은 완성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취한다(Goldscheider et al, 2015; Stanfors & Goldscheider, 2017).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높아진 노동시장 생산성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난 평생고용의 기대수익이 분명한 동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2009).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면서도 가사 및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상황은 가족 전체에도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점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과 가족

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규범이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확립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표 1] 성평등 접근의 단계별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베커 균형	다중 균형	성평등 모델 /성평등 균형
가족(돌봄노동)	여성	여성	여성, 남성
노동시장(임금노동)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결혼 인식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Chesnais(2005)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s paradox)’라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균열과 출산 행위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선진국에서는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수준이 정비례 관계를 맺으나, 성평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후진국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고용지위가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높아질 때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는 성평등이 확산된 정도와 노동시장 및 가족 영역에서 역할 분리가 해체되는 시차가 섞여 있으나 두 차원은 분석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전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에 국한될 뿐 가족에서의 성평등은 진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은 완화되지 않는다.

성평등의 진전을 노동시장 영역과 가족 영역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시각은 각 단계에 따른 결혼 인식이 비선형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성평등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행은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성역할규범 변화 단계에 따른 결혼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여성의 취업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작동하는 단계, 즉 베커 균형에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 여성의

취업을 규범화하는 변화는 일어났으나 가족돌봄의 의무에 대한 강조는 변하지 않은 다중균형 단계에서는 부정적 결혼 인식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가족돌봄 의무 강조가 남성의 분담을 통해 완화되어 성평등 균형에 이르게 되면 결혼에 대한 인식은 다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성역할 혁명이 전개되는 단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U자형 그래프를 그린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국가들은 성평등 접근이 가정된 대로 변화를 겪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외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 영역에서 이뤄진 성평등 모델로의 이행이 가족 영역에서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Knight & Brinton(2017)은 유럽 국가들의 성역할규범을 귀납적으로 유형화한 결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하나로 수렴하는 대신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있음을 밝힌다. 성평등 접근에서 상정하는 성평등과 같은 의미의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galitarianism)’이 몇몇 국가들에서 나타나지만, 일터에서의 평등을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평등한 가족주의(Egalitarian Familism)’, 결과적 평등 대신 여성에게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선택할 권리를 평등으로 간주하는 ‘유연한 평등(Flexible Egalitarianism)’과 공존한다는 발견이다. 이러한 분류는 성역할의 변화가 단선적인 경로를 따르기보다 국가별 맥락에 따라 분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국에서 ‘전통주의(Traditionalism)’ 유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그 자리를 반드시 ‘자유주의적 평등’ 유형이 대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Brinton(2016)과 Brinton & Lee(2016)에 따르면 성역할태도 유형 간 분화가 포착되는 주요한 원인은 ‘성역할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의 지속에 있다. 성역할 본질주의는 여성과 남성이 구분된 특성과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인식으로 (Crompton & Lyonette, 2005; England, 2010), 여성의 본질적인 역할을 가족의무로, 이와 쌍을 이루는 남성의 본질적인 역할을 가족의 생계부양에서 찾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여성을 2차적 지위에 배치하는 불평등의 기제로 작동한다. 여성이 취업할 권리가 인정받게 되었다더라도 성역할 본질주의가 지속된다면 일터에서의 성평등은 제한을 받는다.

성역할 본질주의의 지속은 여성의 늘어난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반감에 그치지 않는다. 행태적 차원에서 여성이 남성만큼 오랜 시간을 임금노동에 투자할 수 없는데서 비롯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은 가족 내 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까닭에 직장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헌신하는 ‘이상적인 노동자(ideal worker)’에 부합하는데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동료들에 의해 부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여성이 임금노동과 가사 및 돌봄노동 사이에서 역할갈등을 겪을 때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가족, 특히 부모됨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여 ‘이상적인 엄마(ideal mother)’가 되는 선택을 촉진한다. 가사 및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여성 배우자를 둔 생계부양자 남성을 이상적인 노동자 상으로 설정하는 노동제도 및 관행이 성역할 본질주의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Stone, 2007; Cha, 2010; Kim & Cheung, 2015; 허은, 2017; 2018; 이윤주, 2018).

성역할 본질주의는 ‘평등 본질주의(egalitarian essentialism)’라는 문화적 구호의 부상과 연관된다(Charles & Grusky, 2004; Cotter, Hermsen & Vanneman, 2011). 이 구호 아래에서 ‘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남성과 여성의 선택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동시장 대신 가정에 헌신하기를 선택했을 때 이를 존중하는 것도 일종의 평등이라는 인식이다. Knight & Brinton(2017)이 제시한 ‘유연한 평등’ 유형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공유한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집중 양육(intensive parenting)’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업주부는 ‘전통적’ 성역할규범의 위계 구도 내 종속적 위치로의 배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일리 있는 선택으로 새롭게 의미화되었다(Hays, 1998). Hakim(2000)은 이러한 관점을 밀고 나가 남성은 동질적으로 ‘일-중심적 선호(work-centered preference)’를 보이지만, 여성은 모든 세대와 계층에 걸쳐 일-중심적 선호, ‘적응적 선호(adaptive preference)’, ‘가족-중심적 선호(family-centered preference)’로 이질화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선호의 젠더 차이가 ‘전통적’ 성별 분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더라도 더는 규범적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남성의 일관적인 일-중심 선호에 대비하여 여성만이 가정-중심 선호를 보이는 현상은 자발적 선택보다 제도적·규범적으로 여성에게 가족 역할의 수행이 맡겨진 상황의 수용에 가깝다는 반박이 제출되었다(Stone, 2007; Gerson, 2009; Pedulla & Thébaud, 2015). 선택의 자율성을 신화화하는 담론이 일과 가족에서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가족을 선택한다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여성들은 남성을 가사 및 돌봄노동에 끌어들이기보다 자신들이 일터에서 가정으로 역할의 무대를 조정하는 편이 쉽다고 판단해 이 논리를 받아들였다. Cotter et al.(2011)은 미국에서 여성의 취업에 동의하는 사람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부터 추세가 반전되거나 최소한 증가세가 움츠러드는 현상을 관찰한다. 여성의 취업이 규범화되는 듯 보였으나 여성의 본질적인 역할이 노동시장에 있지 않다는 성역할 본질주의가 사라지지 않은 탓에 평등한 성역할규범 확산의 정체 내지는 일종의 후퇴가 나타났다는 진단이다. 성역할 혁명이 끝났다거나 ‘정체(stalled)’되었다는 판단이 내려는 까닭이기도 하다(England, 2010).

그러므로 성역할규범의 변화는 단지 전통적 태도를 지닌 개인이 줄어들고 평등한 태도를 지닌 개인이 늘어나는 단선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수 없다. 평등의 의미를 각기 다르게 부여하는 유형으로 나뉘는 과정을 포괄한다. 유형 간의 핵심적인 차이는 성역할 본질주의의 지속 여부에 있다. ‘자유주의적 평등’ 유형은 가족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젠더와 역할을 분리하지만, ‘가족주의적 평등’ 유형과 ‘유연한 평등’ 유형에서는 여전히 젠더에 따라 역할이 배정된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 내 역할은 여성이 전담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은 남성이 주도하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 접근의 가설대로 성역할 분배가 다중균형의 상태를 일시적으로만 거쳐 노동시장과 가족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평등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비록 ‘전통적’ 성별분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줄어들더라도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전반적인 지지를 얻는 대신 성역할 본질주의의 유지 속에 복수의 경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성역할태도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은 성평등 접근에서

제시한 양적 확산과 질적 분절의 균열을 고려하면서 성역할규범의 변화와 지속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기초한다면 결혼 인식 또한 다중균형 상태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띤다는 일반적인 서술을 넘어 국가별로 구체적인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성역할태도의 유형화를 시도한 기존의 논의는 국가별로 두드러지는 성역할유형이 각기 다르다는 경험적 발견을 통해 성역할규범 변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주장하거나(Knight & Brinton, 2017), 국가별 성역할태도 유형의 비중과 노동시장 제도가 상호작용하여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는(Brinton & Lee, 2016) 거시적 접근에 해당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성역할태도 유형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이것이 결혼 인식과 맺는 관계를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기존의 논의에서 발견한 한국의 성역할규범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고 오늘날의 2,30대에게서는 다소 다른 경향이 포착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3. 한국의 성역할규범 양상과 균열

Brinton & Lee(2016)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성역할태도를 유형화한 결과 앞서 소개한 Knight & Brinton(2017)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네 유형을 도출한다. 두 연구 모두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귀납적인 분류를 수행했음에도 비슷한 결과에 도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각 유형은 ‘전통(traditional)’,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pro-work conservative)’, ‘유연한 평등(flexible egalitarian)’, ‘완전한 평등(full egalitarian)’으로 명명되며 Knight & Brinton(2017)의 전통주의, 평등한 가족주의, 유연한 평등, 자유주의적 평등 유형에 대응한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pro-work conservative)’ 유형이 60%를 상회하며 지배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그 외 전통, 유연한 평등, 완전한 평등 유형은 각각 10% 안팎을 차지하는데 그친다. 스페인,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 스페인 등 보수적이라고 논의되어온 국가들도 완전한 평등 유형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완전한 평등 유형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남성에게 노동시장 우선권을 부여하면서도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지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완전한 평등 혹은 유연한 평등 유형과 달리 일터에서의 평등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반면, 전통 유형과 달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은 바람직한 것이나 그럼에도 주된 생계부양자는 남성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성의 임금노동을 장려하면서도 아동은 어머니의 상시 돌봄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임금노동은 제한한다는 모순을 갖는다. 남성의 본질적인 역할을 생계부양, 여성의 본질적인 역할을 가족 돌봄에서 찾는 성역할 본질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유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한국의 성역할태도 유형 분포는 성평등 접근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우선, '전통' 유형의 성역할태도를 지닌 이들이 '완전한 평등' 유형의 성역할태도를 지닌 이들보다 많은 상태에서 적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확산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전통' 유형의 성역할태도를 지닌 이들이 줄어들긴 했으나 '완전한 평등' 유형 대신 제 3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전한 평등' 유형의 성역할태도를 지닌 사람은 지속적으로 소수에 머문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젠더와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감지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더 나아가,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 유형의 인식 구조는 성평등 모델에 기초한 노동시장 및 교육제도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 제도 간의 괴리를 말한 McDonald(2000a; 2000b)와 달리 노동시장에서도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여성이 일터에서 이상적인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명시적으로 차등적인 대우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웨덴, 미국, 한국에서 드러나는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한 원숙연(2015)에 따르면 스웨덴과 미국에서는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인식이 매우 드물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남성의 취업과 다른 가치를 갖는다는 평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남성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구조화한다. 노동시장에

서는 여성과 남성이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만, 여성에게 가족 내 역할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절반의 혁명’과는 상황이 다르다.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모델이 정착하지 않았는데 가족 내에서 성평등 모델이 부상하기는 더욱 어렵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성역할 본질주의가 가족에서의 성역할 본질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에서 여성은 가족돌봄 역할을 둘러싸고 강력한 규범적 압력을 받는다.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에서 나타나는 여성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한 정선영(2017)은 엄마가 일을 하면 자녀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한국에서 두드러진다고 밝힌다. 이러한 인식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강하게 드러난 독일, 스웨덴과 달리 한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 특유의 교육열로 인해 자녀 교육이 가족돌봄 역할의 핵심적 요소로 강화된 상황에서 여성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장경섭, 2009; 정순돌·배은경·최혜지, 2012; 이민아, 2013; 김혜영, 2016; 정선영, 2017).

동시에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고착화된 일터에서의 젠더불평등이 여성이 가족 내 역할을 전담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Brinton, Bueno, Oláh & Hellum(2018)은 일본의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 이후 시간제 임금노동과 가사 및 돌봄노동의 병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 배경으로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요구받는 남성들이 직장에 대한 헌신을 강화해 초과 근무를 하는 일터의 문화를 지목한다. 여성은 남성처럼 장시간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대신 일터에서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족에서의 부담을 이중적으로 맡는다. 결과적으로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비슷하므로 여성과 남성 간의 역할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여긴다.

하지만 한국의 여성들 또한 일본에서와 같이 성별분업에 수용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원숙연(2015)은 한국에서 스웨덴과 미국에 비해 남성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동조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 여성을 중심으로 임금노동을 남성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성역할규범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전통 유형에서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 유형으로의 변화를 넘어 일터에서의 평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 태도는 공고한 가운데 이 균열이 가족 내 역할의 분담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태도가 연령과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는 여성 내부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를 제기한다(정순돌 외, 2012; 김영미·류연규, 2013; 원숙연, 2015; 정선영, 2017).

따라서 이 연구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예비적인 수준에서 현재 한국인들이 표출하는 성역할태도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전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에 실시된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젠더와 연령에 따른 응답 양상을 1990년 자료의 것과 비교분석한다. Brinton & Lee(2016)는 1990년과 2001년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보다 최신의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치관조사는 매 조사에 성역할태도 관련 문항을 포함하나 조사마다 사용된 문항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1990년과 2010년에 실시된 두 조사 모두에 포함된 성역할태도 문항들 중 노동시장과 가족 영역에서 하나씩 선정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의 <표 2>은 ‘불경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더욱 보장받아야 한다(When job is scarce, 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than women)’는 문항에 대한 1990년과 2010년의 젠더·연령별 응답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1990년에는 전체적으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많은 가운데 40대 이상 남성에게서 찬성의 비율이 가장 높고 20-39세 여성에게서 반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이한 점은 2,30대 여성의 찬성 비율이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에 뒤집혀 2,30대 여성의 찬성 비율이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2,30대 남성 집단의 성역할태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찬성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고 반대의 비율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다. 40대 이상 여성과 남성에서도 찬성의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고 찬성도 반대도 아님이 늘어나긴 했으나 반대의 비율이 감소한 까닭에 반대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집단은 2,30대 여성뿐이다. 전체 평균을 보면 여전히 찬성이 미세하게 반대를 앞선다. 2,30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우위성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게 되었지만 찬성이 반대에 비해 월등히 많은 40세 이상 여성과 남성, 그리고 2,30대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우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표 2] ‘불경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더욱 보장받아야 한다’에 대한 젠더·연령별 응답

단위: %	1990			2010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반대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반대
2,30대 여성	42.5	23.3	34.2	10.6	41.0	48.4
2,30대 남성	27.6	43.8	28.6	23.3	52.6	24.1
40대 이상 여성	50.9	21.7	27.4	38.9	38.1	23.1
40대 이상 남성	59.5	22.7	17.8	43.1	43.7	13.2
전체	42.2	29.4	28.5	30.7	43.3	26.0

한편, 다음의 <표 3>는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A pre-school child is likely to suffer if his or her mother works)’는 문항에 대한 1990년과 2010년의 젠더·연령별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990년에는 강한 찬성이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찬성이 비슷한 비중으로 다수를 점하게 되었으며 반대 응답 또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은 2,30대 여성과 남성으로 1990년에는 40대 여성에게서 반대와 강한 반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젠더 상관없이 2,30대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취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30대 여성과 남성에서 반대와 강한 반대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과 강한 찬성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며 40대 이상 여성과 남성에서는 여전히 찬성과 강한 찬성의 비중이 반대와 강한 반대의 비중을 크게 앞지른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성의 가족돌봄 역할에 대한 규범적 요구가 다소 약화되긴 했으나 사라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표 3]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에 대한 젠더·연령별 응답

단위: %	1990				2010			
	강한 찬성	찬성	반대	강한 반대	강한 찬성	찬성	반대	강한 반대
2,30대 여성	43.6	30.4	19.1	7.0	7.8	42.2	38.3	11.7
2,30대 남성	41.9	29.0	23.7	5.3	6.0	40.1	41.3	12.7
40대 이상 여성	53.4	14.0	19.7	12.9	12.0	50.1	30.9	7.0
40대 이상 남성	50.8	24.9	18.4	6.0	9.1	48.3	34.0	8.5
전체	46.3	25.5	20.6	7.6	9.0	45.8	35.5	9.6

두 문항에 대한 응답 변화만을 근거로 한국에서 진행된 성역할태도 전반의 변화를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2,30대 연령층과 40대 이상 연령층의 성역할태도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격차의 양상은 문항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 노동시장에서 남성 일자리의 우선성에 관한 인식은 연령보다 2,30대 내부에서 젠더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진다. 한편, 어머니의 아동돌봄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젠더보다 연령에 따른 격차가 더 크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

평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 간 못지않게 연령대 내 격차도 클 것으로 여겨진다.

격차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성역할규범이 성역할의 젠더 분리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간 평등한 성역할 분배를 지향한다기보다 여전히 젠더별로 주된 역할이 있다는 인식은 유지되면서 일부 수렴하는 태도로 나아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남성 일자리의 우선적인 보장을 반대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에서 성역할 본질주의의 지속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2,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 성역할 본질주의를 탈피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완전한 평등’ 혹은 ‘자유주의적 평등’으로 이름 붙여진 유형이 부상했을 가능성 역시 시사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2,30대 여성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발견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을 2,30대로 한정하여 성역할태도를 유형화한다. 이와 같은 대상의 구체화는 40대 이상의 응답 양상이 유형을 분류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한 분석에서는 유형의 비율뿐만 아니라 유형의 구성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연구는 2,30대만을 대상으로 도출한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분석 대상은 2,30대로 제한하더라도 규범적 맥락은 전 연령대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제까지의 논의에 기초한다.

규범은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동시에 제도는 규범을 체현하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Pfau-effinger, 2005; 김사현, 2015). 2,30대가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과 가족 등 사회의 기본적 제도들은 기성의 규범을 강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기성 연령대와 구분되는 태도를 지닌 젊은 연령층의 개인들은 가족을 형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도 및 규범 태도 간의 괴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할 수 밖에 없다. 가족 형성 이후 지향하는 성역할태도를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결혼 인식을 규정하는 배경으로서 한국의 제도적 맥락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한국 가족의 제도적 맥락

1. 가족주의적 복지 체제

장경섭(2018)은 한국 산업화 시기부터 개별 가족이 사회재생산의 책임을 전부 떠맡아야 했던 ‘가족 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의 맥락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을 부각한다. 서구 자유주의 사회의 단위가 개인이었던 데 비해 한국 사회의 단위는 가족으로 설정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도화된 가족주의(institutionalized familialism)’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인데, ‘사회제도들의 형성과 운용에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그리고 명시적·묵시적으로 가족적 차원의 책임·의무·권리를 강화하고 가족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효과’로 정의될 수 있다(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3). 한국의 제도화된 가족주의는 서구의 복지체제가 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남성부양자와 여성양육자로 이루어진 가족모델을 보호하고 그 가족모델을 통해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개발 이외에 사회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가족이 스스로 전담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서구 사회와 국가 모두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출생부터 양육, 교육, 생업, 노후부양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에 의지하여 가족을 위하여 삶을 살도록 규범적으로 강요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해왔다는 관점이다.

한편, 윤홍식(2012)는 가족주의(familism)와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를 구분하며 전자는 집단으로써 가족이 모든 사회의 근간이며, 집단으로써 가족의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시된다는 뜻으로, 후자는 개인의 복지와 돌봄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한국이 ‘가족주의’에 기초한 제도적 맥락을 갖는다는 진단에 두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들은 주로 가족책임주의의 정의에 기초하여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준을 준거로 한국을 강한 성별분업 규범을 바탕으로 (확대)가족을 주된 수행자로 지정하는 가족지향적 유형으로 분류한다(Esping-Andersen, 1999; Lohkamp-Himmighofen & Dienel, 2000). 그러나 한국의 가족주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가족주의

가 한국에서 가사 및 돌봄노동이 가족 내부에서 수행된다는 뜻을 넘어 개인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가족 단위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을 드러내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윤홍식, 2012; 장경섭 외, 2015; 장경섭, 2018).

가족주의는 개인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이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도록 하는 이념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개인에게 적절한 사회 안전망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가족 형성과 유지에 대한 규범적 요구를 강화한다. 그 결과 한국인에게서는 개인보다 가족에 대한 의무, 구체적으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야한다는 태도가 비교문화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동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이 선행되어야한다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적 규범을 우위에 놓는 태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은기수, 2006; 최유정 · 최섯별 · 이명진, 2011, 정순돌 외, 2012; 이순미, 2014b). 제2차 인구 변천 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은 서구에서 전통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규범 변화가 진행되어 가족 형성 및 생활에 대한 헌신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van de kaa, 1987; 2004; Lesthaeghe, 2010; 2014), 한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시각이다.

한국의 가족주의적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은 한국인들이 가족생활에서 이미 다양한 기능과 역할 수행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에 더하여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에 대한 대비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요구되자 가족 형성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결론이다. 가족의 현실적 효력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혼 및 만혼을 선택하긴 하나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가족주의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장경섭, 2009; 장경섭, 2011). 이에 따르면 부정적 결혼 인식이 심화되는 원인은 노동시장과 가족에서의 평등한 역할 분배를 추구하는 지향의 확산보다 결혼에 따르는 각종 가족의무를 이행할 자원을 갖추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한 적응적 감각에 있다(Chang & Song, 2010).

비슷한 맥락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자원이 감소한 상태가 결혼이행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부

정적 결혼 인식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확산되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결혼할 만한 남성(marriageable men)’의 감소가 여성이 남성에게 대한 경제적 의존 대신 독자적 생계부양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결혼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는 논리다(Lichter, McLaughlin, Kephart & Landry, 1992; Carbone & Cahn, 2014).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된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는 여성이 생계부양자 남성과의 결혼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고용지위에 의지하도록 하는 성역할규범의 변화를 경유하여 여성이 점차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된다(박경숙 외, 2005).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의무의 과중함을 지적하는 접근은 남성이 1인 생계부양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규범적인 요구를 받는 현실이 문제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여성에게 규범적으로 부여된 무급노동의 무게뿐만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받게 되는 경제적 타격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여성도 가계에 기여를 해야 한다거나 남성 생계부양자의 지위를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된다(배은경, 2009; 조은, 2010). 이 연구는 한국의 가족주의적 복지 체제에서 여성이 지는 부담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전통적’ 성역할규범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을 함께 주목한다.

2. 젠더 분절적 노동시장

정이환(2013)은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고용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젠더에 따른 분절을 꼽는다. 한국에서 젠더는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 못지않은 노동시장 분절의 주요한 축으로 작동한다는 진단이다. 노동시장 지표를 국제비교해보면 2016년 한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58.4%로 OECD 35개국 중 31위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도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젠더별 임금 격차는 36%로 조사되었다. OECD 자료를 이용해 비교해보면 35개국 중 한국이 가장 크다(OECD, 2017). 숙련 수준이 높고 고임금과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상위 직업을 남성이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저숙련·저임금·고용불안의 하층부 직업

에 종사하는 경향의 성별 직종(직업) 분리 때문이다(허은, 2013; 이순미, 2015).

동시에 한국의 임금체계는 연공적 성격이 강하며, 근속 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 정도 역시 크다는 점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연공임금은 가족형성기 탈취업 비율이 높은 여성에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생계부양자로 여겨지는 남성 노동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남성에게 가계부양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부양 역할은 충분히 성취되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내부 노동시장에 위치할 확률이 높으나 내부 노동시장 일자리 공급의 부족으로 외부 노동시장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내부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시작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여성 배우자가 생계부양에 참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이나 비정규직 등 고용체제의 주변부에 밀집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최선영·장경섭, 2012).

이러한 맥락에서 규범적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두 가지 경로로 지속된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는 상황은 남성의 주된 생계부양자 지위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Murphy, 2002). 남성의 가구 내 소득 기여 비율이 여성의 것을 크게 앞지른다면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분담할 유인이 적다. 따라서 여성이 노동시장의 임금노동에 배치되는 것을 넘어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비율이 높아졌을 때 부양자 역할을 분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Warren, 2007) 남성의 가족 내 노동 참여를 규범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끌어낼 수 있다. 동시에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 규범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이 실제적 부양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남성에게 규범적 부양자로서 권위를 부여하는 담론이 구성된다. 여성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분담하기보다 남성의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 수행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Meisenbach, 2010). 따라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생계 부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평등한 성역할의 분배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강이수, 2011).

따라서 여성이 체계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맥

락 하에서 남성의 생계부양 역할은 충분하게 수행되지 못함에도 규범적으로는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받는다. 동시에 가계의 운영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필요로 하기에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는 성역할태도가 출현한다. 앞서 논의된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적 유형은 이를 경험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허은(2018)은 사례연구를 통해 젠더에 따라 일자리 질이 크게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조건에서 미혼 여성의 임금노동은 가족 형성 이전의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기혼 여성의 임금노동은 어머니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고 밝힌다. 다시 말해, 젠더 불평등한 구조이나 남성 1인 생계부양이 가능하지는 않은 노동시장의 현실이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면서도 남성 일자리의 우선적인 보장에 찬성하는 모순적인 태도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장경섭·최선영(2004)는 출생코호트별 여성의 취업생애에 ‘전통적’ 성역할규범이 반영된 양상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40년대-50년대 중반 출생코호트 여성은 급속한 산업화에 힘입어 결혼 전 취업한 여성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결혼 전후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규모 역시 크게 나타난다.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진 않으나 취업과 결혼 이후의 가족 돌봄 역할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성의 결혼 관련 노동시장 퇴장이 결혼 직전보다 결혼 1년 전 경에 이루어졌다는 결과는 ‘결혼하기 위해’ 취업을 중단해야했던 사정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50년대 중반-70년대 중반 출생코호트 여성은 전체 여성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직종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및 출산 후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조주은, 2004). 1980년대 이후로는 남성 가장의 임금이 상승한 덕분에 재취업의 부담은 다소 낮아졌다. 그러자 여성의 가족 돌봄 특히 육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 ‘전문적인’ 모성 담론이 등장하였다(이재경, 2003). 노동시장의 거시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역할 본질주의에 따른 역할 분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 간의 교육수준 격차가 줄어들고 1990년 후반의 경제위기가 불러온 변화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자란 여성은 이전 출생코호트와 달리 ‘여성’의 생애전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은경(2009)에 따르면 한

국에서는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가사 및 돌봄노동 전담자’의 결합으로 이해되는 성별분업에 따른 성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현모양처로 인정받는 상징적 차원의 보상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젠더 보상체계’에 균열이 일어났다. 따라서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의 보상을 추구하는 대신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 경쟁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개인적 경쟁력과 이동성이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노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 결과 더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생애전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홍찬숙(2017)은 한국에서 McDonald(2000a; 2000b)가 말한 대로 노동시장 제도와 가족 제도 간 충돌이 아닌, 노동시장 제도 대 가족 행태 간의 충돌이 나타난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직장들 또한 대체로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일본과 달리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에서의 역할을 수용하는 대신 결혼을 미루는 추세를 보인다. 장경섭(2018) 역시 한국 사업체들이 부과하는 노동시간이 노동자들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구조적으로 부정하는 수준에 장기간 머물러왔다고 지적한다.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이미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결혼에 따른 가족 내 역할의 추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가족주의적 복지 체제 아래 여성들이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여성들은 원가족(어머니)이나 주변인들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가족에 대한 헌신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려와 두려움을 갖게 된다.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에게 결혼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희생을 감수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인식을 낳는다(이재경·김보화, 2015). 여기서 희생을 감수할 만한 상대란 결혼 이후 임금노동을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생계부양을 보장할 수 있는 남성을 가리킨다. 이상적으로는 가족 형성을 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가족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맞닥뜨릴 이중역할의 문제는 결혼 인식의 조정으로 이어진다(민가영, 2016).

3. 제도적 · 규범적 맥락과 개인적 태도의 충돌

성역할태도 유형의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면 ‘전통적’ 성역할규범에서 ‘평등한’ 성역할규범으로의 변화는 양적 확산과 질적 확장의 두 차원을 포괄한다. ‘평등한’ 성역할규범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동시에 평등의 영역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성평등으로의 수렴이 일어나지 않으며 변화의 결과 도달한 ‘평등’의 의미는 국가별 맥락에 따라 분화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규범이 우세를 점해왔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성의 이중역할이 남성의 고강도 임금노동 역할과 대칭적인 것으로 수용된다는 보고가 있었다(Brinton et al, 2018).

성역할규범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개별 국가가 놓인 맥락을 비교하여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강점이 있으나 국가의 총합적인(aggregate) 수준만을 다루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결정된 성역할규범에 대응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성역할태도가 형성되는 양상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계봉오 · 김영미, 2015; 김영미, 2016; 허은, 2017; Kim & Cheung, 2017). 국가별로 지배적인 성역할규범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개인이 이를 동일하게 수용하지 않으며 각자가 처한 조건 혹은 지닌 경제적 · 문화적 자원에 따라 성역할태도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40대 이상과 이질적으로 ‘평등한’ 역할 분배를 지향하는 일부 한국 2,30대의 성역할태도는 이러한 격차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변화 못지않게 지속이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다. 규범적 맥락 및 이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제도적 맥락은 기성의 규범에 수용적인 태도가 유지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규범을 거부하는 태도가 부상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범을 내면화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단서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한국 2,30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태도 유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 문제 1. 한국 2,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가설 1-1. 여성의 노동시장 역할 수행에 찬성하며 가족 역할 전담에 찬성하는 이중역할 유형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가설 1-2. 여성의 노동시장 역할 수행에 찬성하며 가족 역할 전담에 반대하는 평등 유형이 발견될 것이다.

한편, Esping-Andersen & Billari(2012)은 Hirschman(1970)을 원용하여 불평등하게 인지된 가족 내 역할분배에 대하여 개인들은 가족을 형성하지 않음으로써 이탈(exit)하거나 가족 내에서 항의(voice)하거나 오히려 적응하여 충성(loyalty)하는 세 가지 전략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평등한 성역할규범의 확산 정도에 따라 개인이 택하는 전략이 달라진다고 덧붙인다. 즉,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를 넘은 상태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란 전망을 갖고 항의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 이전이라면 항의 없이 이탈하거나 불평등하다고 여겨졌던 성역할의 분배를 평등한 것으로 재의미화하여 충성하는 편을 택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평등 유형이 소수이며 다른 유형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규범적 맥락에서 평등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은 항의보다 이탈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시 말해, 평등 유형에 속하는 개인은 부정적 결혼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중역할 유형이 주가 되는 한국의 규범적 맥락은 단지 개인적으로 선호되는 태도의 합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에게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게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적 맥락이 반영된 결과기도 하다. 그러므로 평등 유형에서 결혼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양상은 규범적 맥락뿐만 아니라 제도적 맥락으로부터의 이탈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Esping-Andersen & Billari(2012)의 틀에 따르면 이중역할 유형과 평등 유형은 모두 일종의 충성 전략을 택한 결과이므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혼 인식을 갖는다. 성평등 접근은 다중균형 상태에서 결혼 인식이 일관되게 부정적일 것으로 설명하지만 한국은 성역할규범의 변화가 성역할 본질주의를 경유하여 다른 궤적을 따라간 상황이다. 그러므로 결혼

인식 역시 성평등 접근이 예상하지 못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성역할 본질주의는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통해 결합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역할을 분배하므로 결혼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내포한다. 따라서 성역할 본질주의가 강하게 반영된 태도를 지닌 개인의 결혼 인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중역할과 전통 유형 역시 부정적인 결혼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성역할의 제도적·규범적 맥락이 가족 인식을 조절하는 양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규범적 맥락이 개인적 태도를 경유해 의향과 행위를 제약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컨대 Brinton(2016)과 Brinton et al(2018)은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출산아 수의 괴리를 성역할규범의 맥락의 효과로 설명한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꾸준히 2명으로 조사되나 현실적인 의향이나 실제 출산아 수는 이에 훨씬 미치지 않는 현상이 성별분업의 실천을 규범적으로 요구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환경에서 의향과 행위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중역할 유형과 전통 유형에 속하는 개인 또한 지향하는 태도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갖게 된다.

한국의 제도적·규범적 맥락에서 이중역할 유형의 여성과 전통 유형의 남성은 자신이 지향하는 성역할태도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 먼저, 국가 및 일터가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 수행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서 이중역할 유형의 여성이 기대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가족돌봄을 전담해야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과 병행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가족 형성을 소극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을 꾸리더라도 가사 및 돌봄노동을 전담하지 않을 수 있다면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에게 헌신하지 않는 아내와 엄마가 사회적·가족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규범적 맥락 아래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부정적 결혼 인식은 편익보다 필요성에서 두드러지게 발현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중역할 유형의 여성은 임금노동과 가사 및 돌봄노동 모두를 자신의 몫으로 여기며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까닭에 남성의 역할 수행이 필수적이지 않다.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돌봄에 헌신해야한다

고 생각하나 노동시장 참여도 당연시하기 때문에 가족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부양할 자원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결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한편, 이중역할 유형의 남성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찬성하긴 하나 전통 유형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가족 내 노동 수행을 필요로 한다. 여성이 가족 내 역할을 전담해야한다는 인식의 지속은 남성이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보는 인식과 짝을 이루므로 이중역할 유형의 여성과 달리 자신의 역할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중역할 유형의 여성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통 유형의 남성과 유사하게 결혼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반면, 전통 유형의 남성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생계부양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가질 것이다. 결혼 인식 중 필요성보다 편익에서 부정적인 정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여겨진다. 전통 유형은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역할을 분리해서 맡는 상태를 규범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도 상대방의 역할 수행을 필요로 하여 필요성 인식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 인식 간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연구문제 2. 한국 2,30대의 결혼 인식은 성역할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가설 2-1. 평등 유형은 이중역할 유형과 전통 유형에 비해 결혼 필요성과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

가설 2-2. 이중역할 유형은 전통 유형에 비해 결혼 필요성과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

연구문제 3. 한국 2,30대의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 인식은 젠더에 따라 달라지는가?

가설 3-1.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중역할 유형에서 전통 유형보다 결혼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

가설 3-2.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통 유형에서 이중역할 유형과 평등 유형에 비해 결혼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이 연구는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며 다단계지역집락표집법을 사용하여 전국 수준에서 대표성을 가진다. 2016년에는 ‘동아시아의 가족(Family in East Asia)’을 주제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는 한국에서 실시되는 기타 전국 수준 표본자료들에 비해 훨씬 풍부한 성역할태도 관련 질문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성역할태도를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로만 측정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원의 여성가족패널은 여성만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료에서 분석 대상은 20-39세로 한정하였으며 최종적인 표본 수는 여성 174명, 남성 179명으로 총 353명이다.

제 2 절 변수정의

1. 종속변수: 결혼 인식

이 연구는 결혼 인식을 필요성과 편익에 관한 인식으로 측정한다. 먼저, 결혼의 필요성 인식은 “어떤 경우라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한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모르겠다”는 의견 중 “모르겠다”는 결측치로 처리하였고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의 경우를 1, “다소 반대”, “매우 반대”의 경우를 0으로 값을 부여하였다.²⁾

2)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3, “찬성도 반대도 아님”을 2,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1로 코딩하고 성역할태도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찬성도 반대도 아님”은 찬성하는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합쳐서 값을 부여하였다.

한편, 결혼의 편익은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남성인 경우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상당히 반대”, “전적으로 반대”로 이루어졌는데, “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의 경우를 1, “찬성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상당히 반대”, “전적으로 반대”를 0으로 값을 부여하였다.³⁾ 다음의 표는 젠더별로 필요성과 편익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편익보다 필요성 문항에서 젠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4] 젠더별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

단위: %	결혼이 필요하다.	결혼에 편익이 있다.
여성	51.15	40.23
남성	69.83	42.26
전체	60.62	41.36

2. 설명변수: 성역할태도

이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분류한 성역할태도의 유형을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성역할태도 관련 문항이 7개 포함되어있다. 이 문항들은 주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인식을 묻고 있으며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된 것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과 가족에서의 가사 및 돌봄노동의 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등한 성역할태도 유형의 핵심은 남성이 가족 내 역할을 여성과 분담한다는데 있

3) 위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을 3, “찬성도 반대도 아님”을 2, “약간 반대”, “상당히 반대”, “전적으로 반대”를 1로 코딩하고 성역할태도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찬성도 반대도 아님”은 반대하는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합쳐서 값을 부여하였다.

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없는 까닭에 여성이 취업을 했을 경우 가족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인식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가사 및 돌봄노동이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전제에 입각해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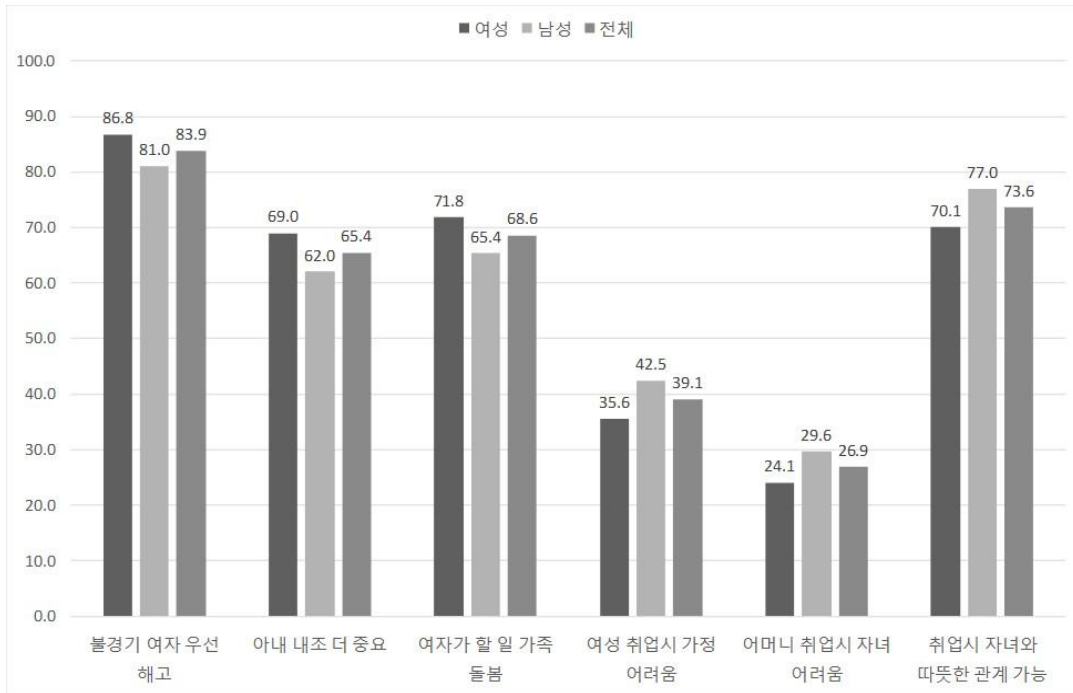
- (1) 불경기에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해도 괜찮다.
(제외)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 (2)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3)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2) 가족에서의 가사 및 돌봄노동

- (1)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 (2)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 (3)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성역할태도의 각 문항을 찬성하는 경우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경우를 0, 반대하는 경우를 1로 값을 부여하였다.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문항의 경우 반대가 ‘평등’, 찬성이 ‘전통’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찬성하는 경우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경우를 1, 반대하는 경우를 0으로 이항변수로 만들었다. 내적합치계수 검사(Cronbach’s alpha test) 또한 이 문항의 방향(sign)이 반대라는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항변수로 조작한 결과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한 응답에서 1로 코딩된 비율이 95.47%로 나타나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다고 간주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내적합치계수도 이 문항을 제외했을 때 상승한다.

[그림 1] 성역할태도 문항별 반대 비율(단위: %)



[그림 1]에서 나타나는 한국 2,30대의 성역할태도 양상을 살펴보면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만 제외하고 가족보다 노동시장 영역으로 분류되는 성역할태도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가족 내 역할이 수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여기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은 규범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노동시장 영역의 성역할태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가족 영역의 성역할태도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에게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가족 내 역할이 여성에게 배정된 현실에서 여성 스스로 가정을 잘 돌보아야한다는 부담감과 취업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남성은 보다 관념적인 차원에서 가족 내 역할을 사고하기 때문에 여성이 취업을 병행하기 바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3. 통제변수

결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젠더, 연령대, 결혼상태, 교육수준, 재학 여부, 고용상태, 부친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종교 유무, 거주 지역을 통제한다. 젠더는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남성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다. 연령대는 20-29세를 20대로, 30-39세를 30대로 집단화하며 결혼상태는 결혼 경험과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미혼 및 동거, 기혼, 이혼 및 사별로 범주형 변수를 구성한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로 범주화하며 2,30대 인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재학 기간도 늘어난 점을 고려해 재학 여부를 재학 및 중퇴, 졸업으로 구분하여 통제한다. 고용상태는 미취업과 취업을 나누고 취업을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및 자영업으로 나눈다. 부친 교육수준은 당시의 교육수준 정도를 고려하여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범주화한다. 가구소득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연속형 변수로 조작하며 주관적 계층의식은 1-9점 척도의 1-3점을 하층, 4-6점을 중층, 7-9점을 상층으로 구간을 만들어 범주형 변수로 사용한다. 종교는 있고 없음의 이항변수로 조작했고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었다. 다음의 [표 5]는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범주	빈도	비율(단위: %)
통제변수1: 개인적 조건	젠더	여성	174	49.29
		남성	179	50.71
	연령대	20-29세	179	50.71
		30-39세	174	49.29
	결혼 상태	미혼	219	62.04
		기혼	123	34.84
		이혼 및 사별	11	3.12

구분	변수명	범주	빈도	비율(단위: %)
통제변수2: 경제적 자원	교육수준	고졸 이하	50	14.16
		전문대졸	64	18.13
		대졸 이상	239	67.71
	졸업 여부	재학 및 중퇴	106	30.20
		졸업	245	69.80
	고용상태	비고용	163	46.18
		상용직	136	38.53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54	15.30
	통제변수3: 문화적 배경	부친 교육수준	중졸 이하	85
고졸			145	42.90
전문대졸 이상			108	31.95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49	13.88
		중층	238	67.42
		상층	66	18.70
종교 유무		있음	205	58.24
		없음	147	41.76
거주 지역		농촌	27	7.65
	도시	326	92.35	

제 3 절 분석방법

먼저,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여 설명변수인 성역할태도 유형을 도출한다. 잠재집단분석은 관찰된 범주형 변수들을 가로지르는 응답 유형을 기반으로 하위 집단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다(Bakk, Tekle, & Vermunt, 2013). 잠재집단모형은 관찰된 범주

형 변수들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공분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 관찰되지 않는, 즉 잠재된 범주형 집단을 도출한다. 이 모형에서 잠재집단의 분류는 각 개인의 응답 유형이 특정 잠재집단, 즉 잠재된 범주형 집단에 속할 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결혼에 필요성이나 편익이 있다고 응답했는지 여부로 이항변수에 해당한다. 이항변수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므로 그대로 회귀분석모델에 투입할 수 없다. 분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승산으로 변형한 후 승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0과 1이라는 하한과 상한을 제거해야한다. 이 연구는 로지스틱(logistic)을 연결함수로 사용하는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성역할태도 유형이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성역할태도 유형이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젠더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활용한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한국 2,30대의 성역할태도 유형

설명변수로 채택한 성역할태도를 묻는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이항변수로 조작하여 잠재집단모형에 투입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은 통계량을 얻었다. 잠재집단분석에서 p-value는 0.05보다 클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적합도(goodness of fit)와 간명성(parsimony)을 동시에 고려하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가 활용된다. BIC가 낮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므로 이 연구는 p-value가 0.05를 넘으면서 BIC가 가장 낮은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 모형을 선택한다.

[표 6] 잠재집단분석의 모형적합성

집단 수	LL	BIC(LL)	자유도(df)	p-value
2	-1103.1332	2282.4937	50	0.0032
3	-1089.9780	2297.2287	43	0.100
4	-1081.9151	2322.1483	36	0.33
5	-1077.2040	2353.7714	29	0.43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역할태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던 선행 연구들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결과를 보고했으나 한국의 2,30대 남녀는 이와 구별되는 성역할태도 유형의 구조를 보인다.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 모형에서는 ‘유연한 평등’에 해당하는 유형이 도출되지 않으며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 모형에서도 4번째 유형은 ‘유연한

평등' 유형과 다른 인식구조를 가진다. '유연한 평등' 유형은 여성의 임금 노동 역할 수행에 찬성하는 한편 가사 및 돌봄노동 역할 전담에 반대하지만, 한국 2,30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잠재집단분석의 4번째 유형은 여성의 노동시장과 가족 역할 수행 모두에 반대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는 이 양상을 해석할 경험적·이론적 단서가 부족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 모형에 관해서만 논의한다.

[그림 2] 성역할태도 유형에 따른 문항별 반대 확률(단위: %)



이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도출된 집단을 각각 평등, 이중역할, 전통 유형으로 명명한다. 유형에 따른 문항별 응답 양상을 살펴보면 이중역할 유형이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평등 유형과, 가족 영역에서는 전통 유형과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먼저 노동시장 영역을 살펴보면 평등 유형의 경우 세 문항을 반대할 확률이 모두 95%를 넘는다. 이중역할 유형 또한 세 문항 모두에 대해 70%가 넘는 반대 확률을 보이지만, 불경기 여자 우선 해고(노동시장1)를

제외하고 아내는 내조가 더 중요(노동시장2)하다거나 여자가 할 일은 가족에서의 가사 및 돌봄노동(노동시장3)이라는 진술에 반대할 확률이 평등 유형에 비해 다소 낮다. 여성이 우선 해고의 대상이 되는 등 명시적 차별을 받는 데는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여성 특히 아내의 임금노동을 남성의 것에 비해 부차시하고 있을 여지를 남긴다. 전통 유형은 불경기 여자 우선 해고에서만 반대 확률이 다소 높을 뿐 다른 두 문항에 대해서는 반대할 확률이 5.1%와 10.4%에 그친다. 여성이 일터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보지는 않으면서도 불경기에 여자를 우선 해고하는 처사는 부당하게 여기는 태도는 한국 2,30대 남녀에게 해고가 치명적인 위협으로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원숙연(2015)이 제시하듯이 스웨덴과 미국에서는 불경기 여성 우선 해고에 반대하는 비율이 95%에 달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전통 유형 중 절반 정도만이 이에 반대한다는 수치는 굉장히 낮은 것이다. 뒤집어 보면 절반은 여성에 대한 명시적 차별에 찬성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족 영역 문항에 대한 응답을 검토하면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자녀와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진술(가족3)에 대해서는 세 유형에 모두 반대할 확률이 더 높다. 평등 유형 87%, 이중역할 유형 74%, 전통 유형 61%로 유형 간 차이는 다소 존재한다. 동시에 취업하는 어머니가 자녀와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취업 전 자녀를 어렵게 하는 것(가족2)도 사실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취업이 가정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진술(가족1)에도 반대할 확률이 낮아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전통 유형은 가족1과 가족2 문항에 대해 12%와 3%, 이중역할 유형은 각각 25%와 18%의 반대 확률을 보여 취업한 여성이 가사 및 돌봄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반면, 두 문항에 대해 평등 유형은 80%와 58%의 반대할 확률을 가졌다. 여성의 취업이 가정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진술에는 압도적인 반대를 표시한 반면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를 어렵게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반대할 확률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 2,30대 남녀 중 상대적으로 평등한 역할 분배를 지향하는 개인이라도 어머니의 자녀 돌봄 의무는 취업과 병행하기 어려울 만큼 막중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함의를 지닌다.

다음의 [표 7]은 평등, 이중역할, 전통 유형의 여성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2,30대 남녀에서 평등 유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긴 하나 여전히 이중역할 유형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역할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나 평등 유형이 발견된다는 가설 1-1과 가설 1-2를 지지하는 결과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성별분업을 고수하는 전통 유형의 비중도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7] 성역할태도 유형별 여성의 역할 인식과 비율

	전통	이중역할	평등
여성 취업 지지	X	O	O
여성 가족돌봄 강조	O	O	X
비율(단위: %)	25.6	42.3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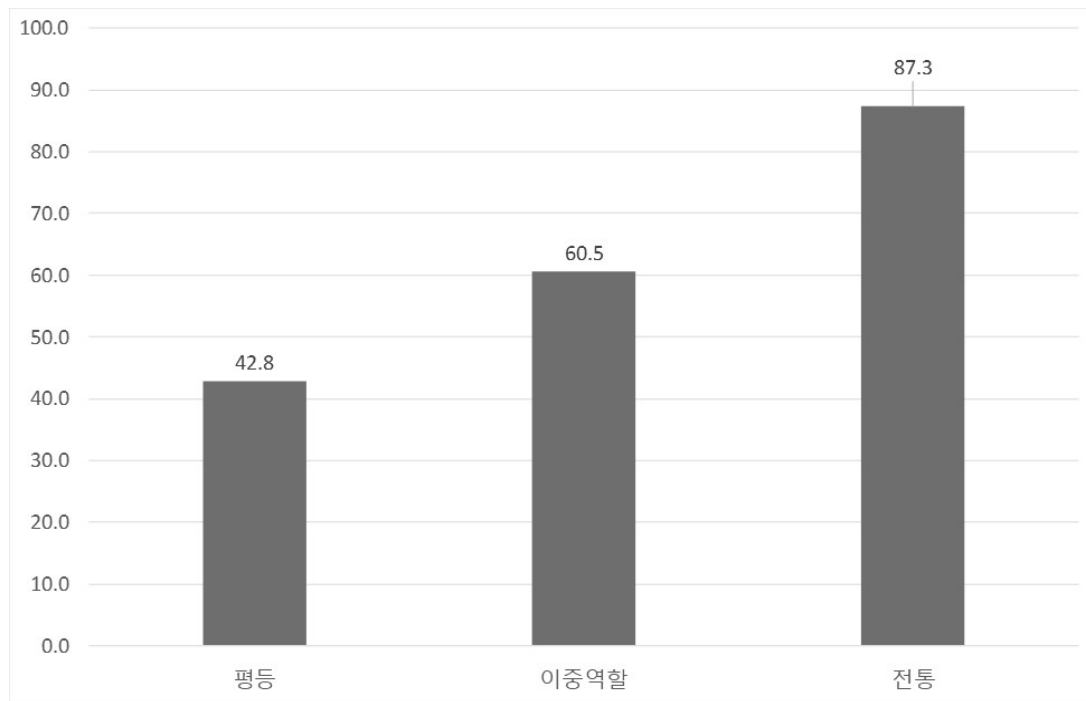
제 2 절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 필요성 및 편익 인식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가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역할태도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성역할태도 유형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평등, 이중역할, 전통 유형의 결혼 필요성 인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등, 이중역할, 전통 유형이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할 확률은 각각 42.8%, 60.5%, 87.3%로 나타나 가설에서 예측한 순서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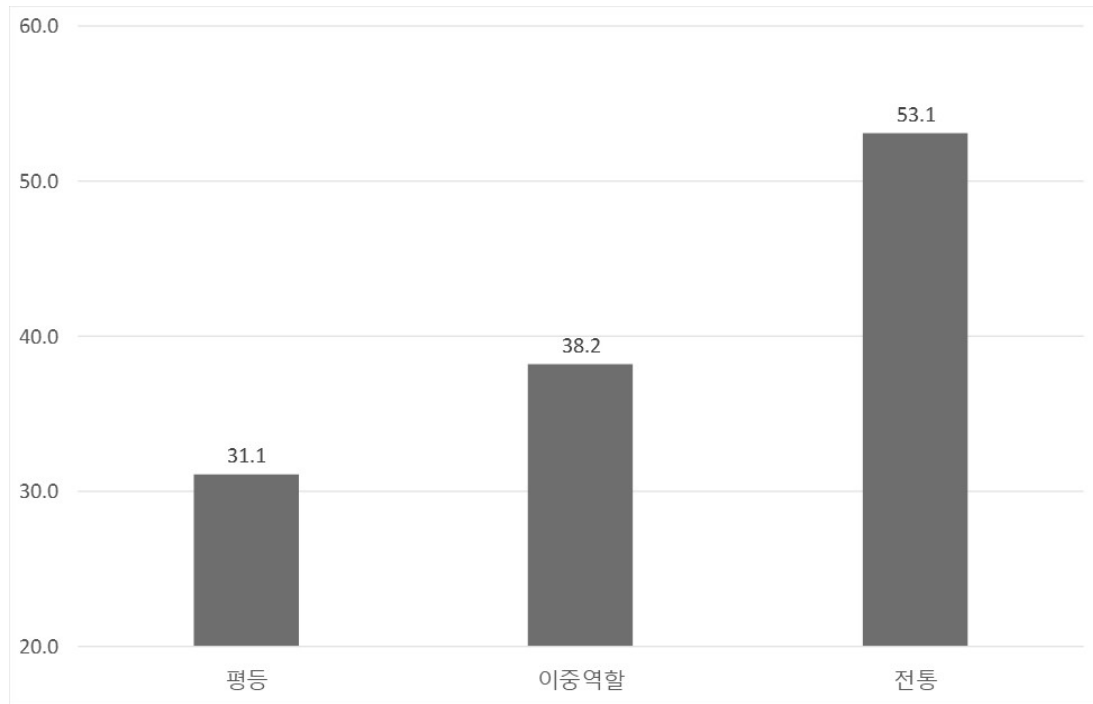
다음으로, 결혼의 편익에 대한 성역할태도 유형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평등 유형과 전통 유형 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평등 유형과 전통 유형이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확률은 각각 31.1%와 53.1%

로 나타나 결혼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평등 유형이 전통 유형에 비해 크게 낮았다. 평등한 성역할 수행을 지향하는 개인의 태도는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가설 2-1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다. 평등 유형이 이중역할 유형에 비해 결혼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만 지지를 받지 않았다. 가설 2-2에서도 이중역할 유형이 전통 유형에 비해 결혼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은 지지를 받았으나 결혼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은 지지되지 않았다. 성역할태도 유형은 결혼 필요성과 편익 인식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 필요성 인식에서 그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결혼 편익 인식은 성역할태도라는 규범적 요인 못지않게 경제적 요인이 큰 설명력을 가진다. 다음의 [그림 3]과 [그림 4]는 결혼 필요성 인식과 결혼 편익 인식에 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3]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필요성 인식 확률(단위: %)



[그림 4]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편익 인식 확률(단위: %)



다음의 [표 8]에서는 성역할태도 유형 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젠더의 효과를 깊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은 유의미할 정도로 다르지 않다. 한편, 고용상태의 효과는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에서 두드러진다. 필요성보다 편익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은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종교의 존재는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부친의 학력은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부친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졸인 경우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더 낮다. 부친의 학력을 자녀가 성장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해석한다면 문화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화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더욱 ‘전통적’이라고 간주되는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읽을 수 있다(이순미, 2014a).

[표 8]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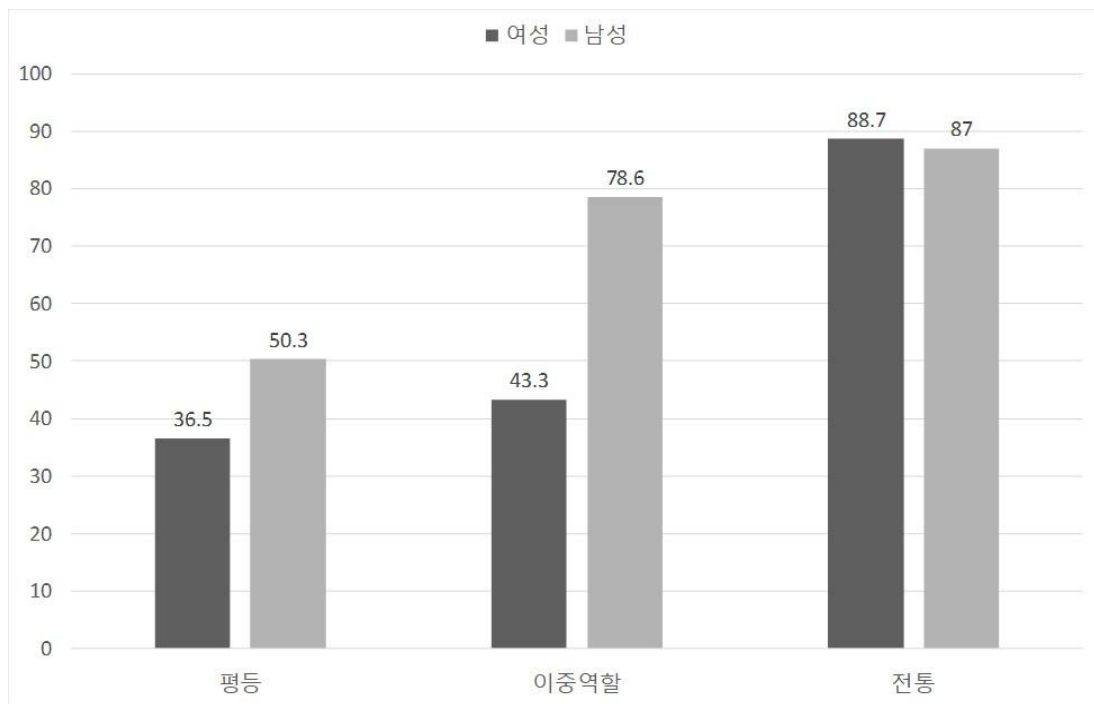
모형	필요성		편익	
	통제	독립	통제	독립
성역할태도 유형(준거: 평등)				
이중역할		0.71*		0.31
전통		2.21***		0.92**
여성(준거: 남성)				
30대(준거: 20대)	-0.96***	-0.90**	-0.34	-0.26
결혼상태(준거: 미혼 및 동거)				
기혼	0.23	-0.26	0.38	0.19
이혼, 사별, 별거	-0.47	-0.67	-0.86	-0.98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졸	-0.08	-0.09	-0.56	-0.57
대졸 이상	-0.04	0.03	0.10	0.13
졸업 여부	-0.06	-0.08	0.73*	0.71
고용상태(준거: 미취업)				
상용직	-0.02	-0.01	0.12	0.15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0.04	0.03	-1.33**	-1.32**
가구소득	0.02	0.10	0.18	0.22
부친 학력(준거: 중졸 이하)				
고졸	-0.89**	-0.79*	-0.52	-0.45
전문대졸 이상	-0.29	-0.26	-0.58	-0.55
주관적 계층의식(준거: 하층)				
중층	0.07	0.26	0.22	0.30
상층	0.49	0.78	0.62	0.70
종교 유무(준거: 없음)	0.52*	0.53	0.52*	0.51*
도농 여부(준거: 농촌)	-0.30	-0.54	-0.76	-0.88
상수	0.89	-0.55	0.22	-0.46
N	302	302	302	302
Pseudo R2	0.07	0.15	0.09	0.10

*** p<0.001, ** p<0.01, * p<0.05,

제 3 절 젠더 차이

이 연구는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과 남성이 보는 역할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여성에게 여성의 역할은 곧 자신의 역할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반면 남성은 여성의 역할을 추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면 가사 및 돌봄노동의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이다. 하지만 남성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 내 역할을 분담하려고 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여성이 임금노동을 병행하면서도 가사 및 돌봄노동을 문제없이 해내기를 기대하는 데 불과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 참여 시간이 전세계적으로 적은 편인 한국의 맥락에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젠더 간 인식의 차이는 성역할태도 유형이 결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젠더에 따라 차별화할 여지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젠더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5]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필요성 인식 확률과 젠더 차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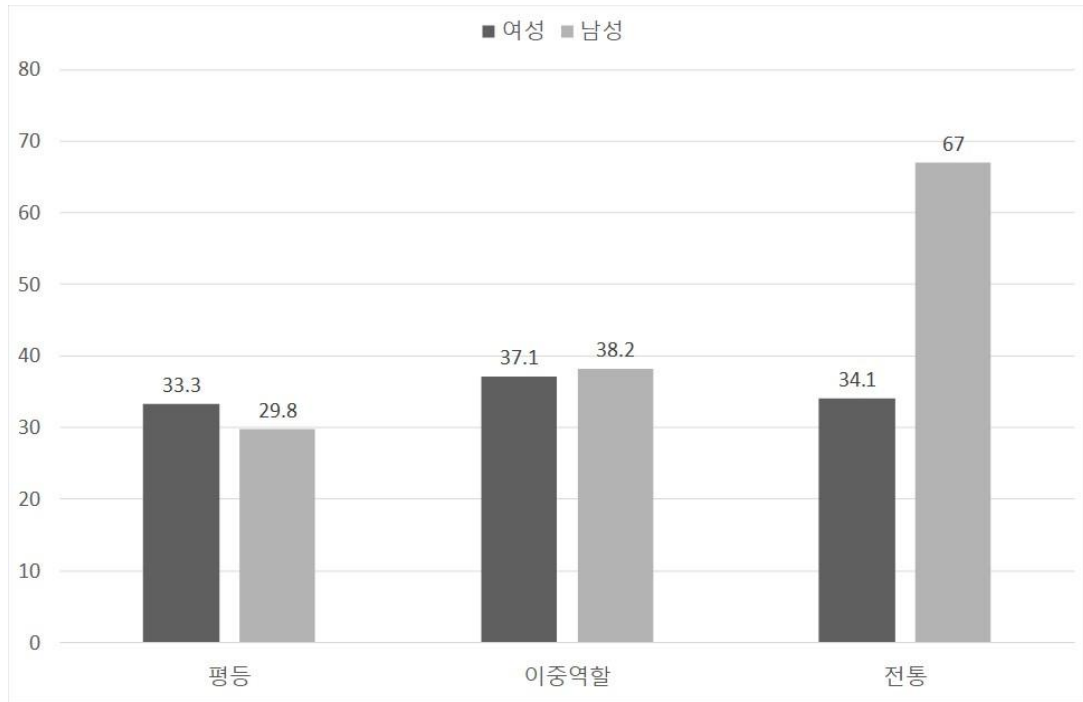
앞의 [그림 5]와 다음의 [그림 6]은 젠더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이중역할의 여성은 평등 유형의 여성과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중역할 유형의 남성은 평등 유형의 남성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오히려 전통 유형의 남성과 비슷하게 높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편, 이중역할 유형의 여성은 전통 유형의 여성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평등 유형의 여성과 남성이 한국의 가족을 둘러싼 제도적·규범적 맥락으로부터 이탈 전략을 취한 결과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중역할 유형의 여성이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지니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규범적 맥락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나 이에 따라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껴 결혼의 필요성 인식을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중역할 유형의 남성은 여성에게 이중역할의 수행을 기대할 뿐 자신이 역할을 분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혼의 필요성 인식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 전통 유형의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가설 3-1이 지지된다.

다음의 [표 9]는 기본 모형과 젠더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의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8]에서는 독립 변수인 성역할태도 유형의 효과가 평등 유형을 준거로 제시되었으나 [표 9]에서는 이중역할 유형이 준거로 설정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평등 유형과 전통 유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이중역할 유형과 전통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의 준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의 효과는 이전의 독립 변수를 투입한 모형과 동일하다. 결혼의 필요성과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 모두 이중역할 유형과 평등 유형 간의 차이가 젠더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역할 유형에 비해 전통 유형이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크고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고용상태, 부친 학력, 종교 유무의 효과가 [표 8]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표 9] 젠더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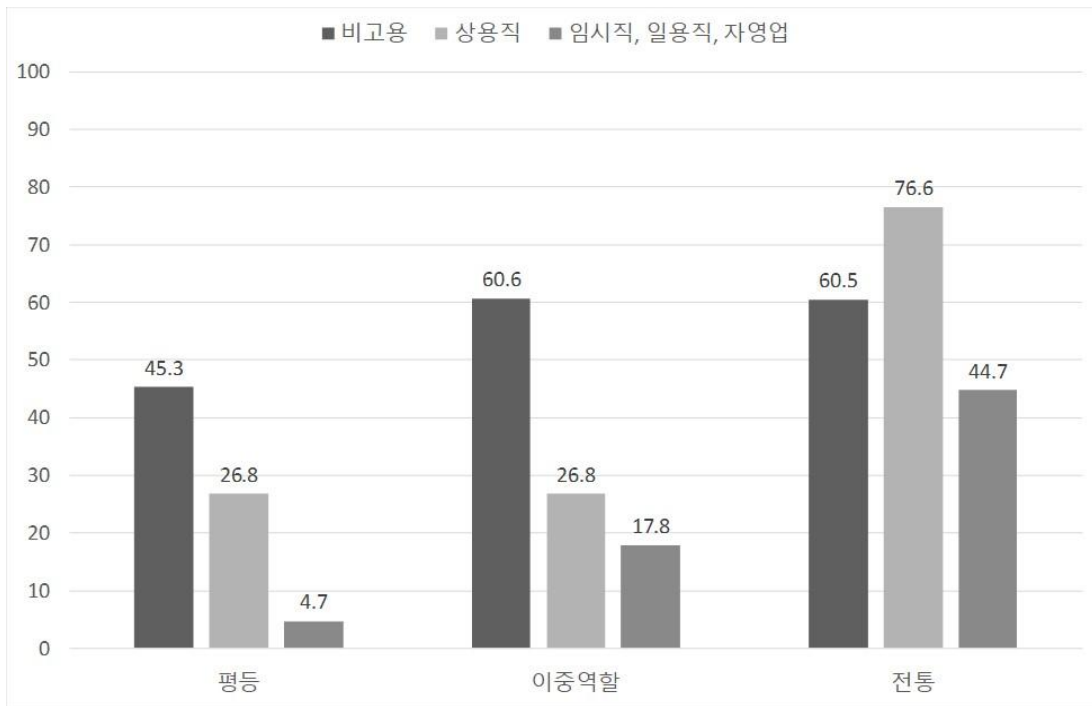
	필요성		편익	
	기본	상호작용	기본	상호작용
성역할태도 유형(준거: 이중역할)				
전통	-0.71**	-1.29**	-0.31	-0.38
평등	1.50***	0.06	0.61	1.19**
여성(준거: 남성)	-0.90**	-0.57	-0.26	-0.05
성역할태도 유형(준거: 이중역할) X 여성				
평등 X 여성		1.00		0.21
전통 X 여성		1.72*		-1.32*
30대(준거: 20대)	0.25	0.31	-0.50	-0.49
결혼상태(준거: 미혼 및 동거)				
기혼	-0.26	-0.30	0.19	0.20
이혼, 사별, 별거	-0.67	-0.58	-0.98	-1.00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졸	-0.09	-0.14	-0.57	-0.61
대졸 이상	0.03	0.07	0.13	0.07
졸업 여부	-0.08	-0.05	0.71	0.74*
고용상태(준거: 미취업)				
상용직	-0.01	-0.02	0.15	0.08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0.03	-0.02	-1.32**	-1.39**
가구소득	0.10	0.05	0.22	0.28
부친 학력(준거: 중졸 이하)				
고졸	-0.79*	-0.82*	-0.45	-0.44
전문대졸 이상	-0.26	-0.26	-0.55	-0.56
주관적 계층의식(준거: 하층)				
중층	0.26	0.41	0.30	0.28
상층	0.78	0.97	0.70	0.65
종교 유무(준거: 없음)	0.53	0.54	0.51*	0.54*
도농 여부(준거: 농촌)	-0.54	-0.57	-0.88	-0.89
상수	-0.55	-0.64	-0.46	-0.60
N	302	302	302	302
Pseudo R2	0.15	0.16	0.10	0.12

[그림 6]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편익 인식 확률과 젠더 차이(단위: %)



한편, [그림 6]은 여성의 경우 성역할태도 유형 간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전통 유형이 평등과 이중역할 유형보다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중역할 유형의 여성이 기대되는 역할을 완수하는데 부담을 느끼듯이 전통 유형의 남성 역시 생계부양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가설 3-2와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전통 유형이 평등 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결혼 인식을 갖는 정도가 남성이 생계부양 역할에 부담을 느껴서 결혼 인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는 정도에 비해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어떤 조건을 가진 남성이 전통 유형에서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용상태를 상호작용항으로 추가한 모형에서 상용직 남성이 미취업 남성에 비해 전통 유형에서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남성의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편익 인식 확률과 고용상태 차이(단위: %)



[그림 7]은 남성에게 성역할태도 유형별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고용상태에 따라 차별화되는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비고용 상태인 경우 성역할태도 유형 간 결혼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상용직 상태인 경우 전통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결혼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의 경우에도 전통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고용상태에서 전통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결혼의 편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실 상용직 남성이 전통 유형에서 긍정적인 결혼 인식을 가진다는 점보다 비고용 상태의 남성이 전통 유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결혼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설 3-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전통 유형의 남성이 생계부양 역할 수행에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갖게 되는 대신 전통 유형이 결혼의 편익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비고용 상태인 경우 상쇄되어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 5 장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 2,30대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에게는 소극적 회피를, 다른 일부에게는 적극적 거부를 의미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 2,30대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에 상이한 결혼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성역할 태도 유형이 이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젠더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성역할태도 유형을 검토하기에 앞서 성역할규범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비교연구들은 국가 간 존재하는 가족 및 결혼 인식의 변이가 국가별 성역할규범 변화의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혀왔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성역할규범의 변화가 갖 시작한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과 가족 영역 모두에서 이중역할을 수행해야하므로 부정적인 가족 및 결혼 인식을 갖는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중역할을 기대하는 한국의 규범적 맥락은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지점이 있었다.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면서도 남성의 취업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였다. 한국의 여성은 경제적 기여를 요구 받으면서도 가족돌봄의 전담이 당연시되는 ‘이중역할’ 수행의 부담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여성의 임금노동을 환영하면서도 이로 인해 가사 및 돌봄노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낸다. 가사 및 돌봄노동을 개별 가족의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여겨 남성과 사회의 몫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에서는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가족 특히 자녀를 돌보는데 헌신해야한다는 성역할 본질주의에 기초한 성역할규범이 우세하다. 이러한 규범적 맥락은 젠더 분절적 노동시장 제도와 가족주의적 복지 체제에 적응한 결과이자 현재의 제도적 맥락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한국 2,30대의 성역할태도는 이러한 한국의 규범적 맥락에 대한 개인적 저항과 변형, 수용을 포괄한다. 먼저, 성역할태도의 유형을 분류했을

때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동등한 역할 수행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평등 유형에서도 가족 영역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평등 유형은 성역할 본질주의에서 벗어나려는 흐름 위에 놓여있다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중역할 유형은 가족 영역에서의 성역할 본질주의가 지속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전통 유형은 노동시장 영역에서도 성역할 본질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2,30대의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 인식 간의 관계는 성역할규범이 전통에서 평등으로 이행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충돌로만 해석할 수 없다.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양상에 모순이 내포되어 있어 이 모순 자체로부터 이탈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룰 경우 성별분업에 기초한 역할 분배를 받아들여야하는 한국의 맥락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의 결혼 인식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남성은 평등을 지향하는 경우 부정적 결혼 인식을 드러내지만 규범에 수용적인 경우 긍정적인 결혼 인식을 갖는다. 여성은 규범적인 역할을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더라도 가족 돌봄에 대한 헌신을 경제활동 참여와 병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을 형성해야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중역할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욱 부정적인 결혼 인식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이 결과는 평등한 성역할의 분배를 지향해도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이라는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범적·제도적 맥락을 개선해야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역할 분배는 가족 내에서 개인 간, 특히 여성과 남성 간 합의에만 달려있지 않으며 구조적 맥락의 작용 아래 놓여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도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역할에서 배제되거나 특정한 역할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문제적이다.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역할 규범은 여성과 남성이 결합한 이성애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상정하여 이와 다른 결합 혹은 개인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어느 젠더로 태어났는지, 누구와 사는지에 구속 받지 않고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맥락에서는 결혼 인식이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및 보고서

통계청 (2018) "2017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연구"

OECD (2016) "Gender Data Portal"

2. 국내 문헌

강이수 (2011). "남성부양자 가족의 균열과 지속." 가족과 문화 23(4): 123-145.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사현 (2015). "가족정책 지원유형에 따른 성역할태도 변화." 한국사회정책 22(1): 285-316.

김영미 (2016).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경제와 사회 -(112): 41-74.

김영미, 계봉오 (2015).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국여성학 31(3): 1-30.

김영미, 류연규 (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5(2): 90-128.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24.
- 김혜영 (2016).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17(1): 115-146.
- 민가영 (2016). "젠더·계층의 교차를 통해 본 20대 대학생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 한국여성학 32(2): 113-147.
-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 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배은경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페미니즘 연구 9(2): 39-82.
-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젠더와 문화 8(1): 7-41.
- 심영희 (2011).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아시아여성연구 50(2): 7-44.
- 오지혜, 임정재 (2016).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0(5): 203-245.
-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우해봉 (2012).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과정." 한국인구학 35(1): 151-179.
- 원숙연 (2015). "이질동형? 동질이형? 한국-미국-스웨덴의 여성노동에

-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 구조와 함의." 정부학연구 21(2): 171-199.
- 유홍준, 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윤홍식 (2012).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64(4): 261-284.
- 은기수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사회학 47(2): 143-176.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순미 (2014a).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과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한국사회학 48(2): 67-106.
- 이순미 (2014b). "가족중심주의와 개인화 사이의 한국 가족." 가족과 문화 26(3): 1-36.
- 이순미 (201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한국여성학 31(2): 91-129.
- 이순미 (2016). "비혼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변형과 젠더 차이." 사회과학연구 40(3): 1-30.
- 이윤주 (2018). "성인이행기와 관련된 지위의 변화가 청년 남녀의 성역할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0(2): 105-128.
- 이재경 (2003). 가족의 이름으로 :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서울 : 또 하나의문화.
- 이재경, 김보화 (2015). "2, 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한국여성학 31(4): 41-85.

-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한국인구학 35(3): 117-144.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 : 창비.
- 장경섭 (2011a).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사회정책 18(3): 63-90.
- 장경섭 (2011b).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과 문화 23(3): 1-23.
- 장경섭 (2017). 이정덕 외, 한국의 압축근대 생활세계 : 압축 근대성 개념과 압축적 경험, 서울 : 지식과교양.
-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 집문당.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 문화 27(3): 1-38.
- 정선영 (2017).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태도의 국가별 차이." 가족과 문화 29(2): 70-94.
- 정이환 (2013). 한국 고용 체제론, 서울 : 후마니타스.
- 정순돌, 배은경, 최혜지 (2012). "세대별 부양의식 및 성역할인식 유형." 한국가족복지학 17(2): 5-23.
- 조은 (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한국여성학 26(1): 60-95.
- 조주은 (2004). 현대가족 이야기, 고양 : 이가서.
-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33(3): 31-51.

- 최선영, 장경섭 (2004). "성 분업의 근대적 재구성." *사회연구* 5(2): 173-203.
- 최선영, 장경섭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한국사회학* 46(2): 203-230.
- 최유정, 최셋별, 이명진 (2011). "세대별 비교를 통해 본 가족 관련 정체성의 변화와 그 함의." *가족과 문화* 23(2): 1-40.
-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허은 (2013).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7(2): 241-266.
- 허은 (2017). "개인화와 성별분업." *한국사회학* 51(4): 47-78.
- 허은 (2018). "창원 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성별 노동 불평등 적응 기제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120(2): 158-197.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한국인구학* 37(4): 25-59.
- 홍찬숙 (2015). *개인화 : 해방과 위협의 양면성*,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홍찬숙 (2017). "동북아 가족주의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동북아 역사논총* 58: 372-415.

2. 국외 문헌

- Arpino, B., et al. (2015). "How Do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Towards Female Employment Influence Fertility? A Macro-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370-382.
- Bakk, Z., Tekle, F. B., and Vermunt, J. K. (2013). "Estim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latent class membership and external

variables using bias adjusted three-step approaches." *Sociological Methodology*, 43, 272-311

Beck, U.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Vol. 13). Sage.

Beck, U. & Beck-Gernsheim, E. (1995). *The normal chaos of love*. Polity Press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Bellani, D., Esping-Andersen, G., & Nedoluzhko, N., (2017). "Never partnered: A multilevel analysis of lifelong singlehood." *Demographic Research* 37: 53-100.

Brinton, M. C. (2016). "Intentions into actions: Norms as mechanisms linking macro-and micro-level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10), 1146-1167.

Brinton, M. C., & Lee, D. J. (2016). "Gender 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 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3), 405-433.

Brinton, M. C., Bueno, X., Oláh, L., & Hellum, M. (2018). "Postindustrial Fertility Ideals, Intentions, and Gender Inequality: A Comparative Qualit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4(2), 281-309.

Carbone, J., & Cahn, N. (2014). *Marriage markets: How inequality is remaking the American family*. Oxford University Press.

Cha, Y. (2010). "Reinforcing Separate Sphe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2): 303-329.

Chang, K. & Song, M.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 Charles, M., & Grusky, D. B. (2005). *Occupational ghettos: The worldwide segregation of women and men* (Vol. 71). LIT Verlag Münster.
- Cherlin, A.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 Cotter, D., Hermsen, J. M., & Vanneman, R. (2011). "The end of the gender revolution? Gender role attitudes from 1977 to 20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1), 259-89.
- Crompton, R. & C. Lyonette (2005). "The new gender essentialism: domestic and family 'choices' and their relation to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6(4): 601-620.
- England, P. (2010).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 society*, 24(2), 149-166.
- Espenshade, T. (1985). "Marriage Trends in America: Estimates, Implications, and Underlying Caus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2).
-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Scholarship.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Esping-Andersen, G., et al. (2013). "Couple Specialization in Multiple Equilibria."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6): 1280-1294.
- Geist, C. (2017). "Marriage Formation in Context: Four Decad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Sciences* 6(1).

- Gershuny, J., Bittman, M., & Brice, J. (2005). "Exit, voice, and suffering: Do couples adapt to changing employment patter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56–665.
- Gerson, K. (2009). *The unfinished revolution: Coming of age in a new era of gender, work, and family*.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 Goldscheider, F. & Waite, L. (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2(1).
- Goldstein, J. R., & Kenney, C. T.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6–519.
- Hakim, C. (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Preference theory*. OUp Oxford.
- Hays, S. (1998).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 Hiekel, N., Liefbroer, A. C., & Poortman, A. R. (2014). "Understanding diversity in the meaning of cohabitation across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0(4), 391–410.
- Hirschman, A.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 & Machung, A. (2012).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Penguin.

- Hwang, J. (2016). "Housewife, "gold miss," and equal: the evolution of educated women's role in Asia and the U.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9(2): 529–570.
- Kim, E. & Cheung, A. (2015). "Women's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and Life Stage Transitions: A Longitudinal Study in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5): 1074–1090.
- Kim, K. (2017). "The changing role of employment status in marriage formation among young Korean adults." *Demographic Research*, 36, 145–172.
- Knight, C. R., & Brinton, M. C. (2017). "One egalitarianism or several? Two decades of gender-role attitude change in Europ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5), 1485–1532.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esthaeghe, R. (201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ise overview of its development." *Proc Natl Acad Sci USA* 111(51): 18112–18115.
- Lichter, D. T., McLaughlin, D. K., Kephart, G., & Landry, D. J. (1992). "Race and the retreat from marriage: A shortage of marriageable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1–799.
- Lim, S. (2018). "Nonstandard Employment and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2(1), 249–282.
- McDonald, P. (2000a).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17(1), 1–16.
- McDonald, P. (2000b).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cDonald, P. (2013). "Societal foundations for explaining fertility: Gender equity." *Demographic Research* 28: 981-994.
- Mills, M. (2010). "Gender roles, gender (in) equality and fertility: An empirical test of five gender equity indices."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37(3-4), 445-474.
- Murphy, J. (2002). "Breadwinning : Accounts of work and family life in the 1950s." *Labour and History* 12(3).
- Ono, H. (2003). "Women's economic standing, marriage timing, and cross national contexts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275-286.
- Oppenheimer, V. K.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 Park, H., Lee, J. K., & Jo, I. (2013).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 and marriage amo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3), 51-76.
- Pedulla, D. S. and S. Thebaud (2015). "Can We Finish the Revolution? Gender, Work-Family Ideal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1): 116-139.
- Pfau-Effinger, B. (2005). "Culture and welfare state policies: Reflections on a complex interrel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34(1), 3-20.
- Song, M. Y. (2011). "From Demographic to Normative Individualiz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6), 153-174.
- Stanfors, M., & Goldscheider, F. (2017). "The forest and the trees: Industrialization, demographic change, and the ongoing gender revolution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1870 - 2010."

Demographic Research, 36, 173-226.

Stone, P. (2007). "The rhetoric and reality of "opting out"." *contexts*, 6(4), 14-19.

Sweeney, M. M. (2002). "Two decades of family change: The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32-147.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1-59.

van de Kaa, D. J. (2004). "The true commonality: In reflexive modern societies fertility is a derivative." *Population Studies*, 58(1), 77-92.

Warren, T. (2004). "Diverse Breadwinner Models : a Couple-based Analysis of Gendered Working Time in Britain and Denmark."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0(4): 349-371.

Yoo, S. H. (2016).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cohort marriage: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5: 1045-1078.

Abstract

Gender–role attitudes and perception of marriage among Korean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Chae Minji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gender–role attitude types on marriage perception. Prior discussions have pointed out deteriorating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women’s opposition to gender inequality in the family as the main reasons behind South Korean young adults’ growing negative perception of marriage. However, this negative perception of marriage is not necessarily invariable among different people. Thus this study raises and empirically validates the argument that perception of marriage depends on the type of gender–role attitude, and that the effect of gender–role attitude type again varies by gender.

Many earlier studies have maintained that the “traditional”

gender–role norm based on gender division of labor is changing into an “equal” gender–role norm that supports the distribution of roles regardless of gender. They argue that, in cross–national comparison, perception of marriage varies with the degree of change in gender–role norm. In countries where “equal” gender–role norm is established, perception of marriage is generally positive, but in countries where “traditional” gender–role norm persists, it tends to be negative. However, the change in gender–role norm cannot be interpreted simply as evidence of progress from traditionalism to egalitarianism, since the meaning of egalitarianism is different by national context. This study analyzes how South Korea’s two institutional contexts, the familial welfare system and the gender–segmented labor market, have constructed gender role norms. South Korean society encourage women to participate in wage labor, and still expect women to take full charge of care work in family.

This study also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an attitude divergent from the normative context has emerged among young adult group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Contrary to those in their forties or older, a considerable number of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believe that women should enjoy equal rights in the workplace, and that women should not be the only ones who are in charge of care work in the family. Their attitudes differ from the institutional and normative contexts of gender–role division in the family, thus developing a negative perception of marriage. Even when the normative context that imposes double–role on women is accepted, the difficulty of performing the expected dual roles negatively affects marriage perception. The negative effect of gender role is more pronounced in women who have played a main role in the family.

The major findings from latent class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data from Korea General Social

Survey 2016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gender–role attitude in both workplace and family, this study reveals that South Korea’s gender–role norm cannot be examined under the dichotomy of traditionalism and egalitarianism. Some refuse to conform to the gender role norm, and even the ones sticking to the norm face conflict between the double expectations on women to take full charge of family care and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Second, this study also figures out the mechanism of gender–role attitude affecting marriage percep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more women and 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believe in equal gender–role division, the more negative their perception of marriage becomes. This finding reflects that,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and normative contexts of South Korea, people expects a low possibility of being able to live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gender–role attitude after marriage.

keywords : Gender–role attitude, Perception of marriage, Latent Class Analysis, Egalitarian, Double–role, Traditional

Student Number : 2017–22720